Weekly 공감

2011.09.21 NO.126
gonggam.korea.kr



# 지역경제 살찌우는 우리고장 가을축제

P19~41

차상위계층 포함 대학생 1백만명에 장학금 P6~7

원자력계 글로벌 중심 떠오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44~45

“보이시죠?”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감동 하모니 P46~47

#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소중한 자료를 기증 받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개항부터 현재까지를
4개 대주제로 나누어 전시할 계획입니다.

-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 대한민국의 태동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며, 국민의 자긍심 고양을 통해 국가발전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2012년 12월 광화문국가상징거리(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 자료기증 안내

**대 상**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유물·기념품·생활용품 등

**문 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02-3704-9948)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정리실 (02-590-6386)

**홈페이지**

www.museumrok.go.kr

※ 기증된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또는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Committe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Established

# 축제는 '지역개발전략'이다


조선DB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

*최근 지역개발과 문화관광형 축제가 늘면서 지역과 국가의 축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전략은 지방화가 잘된 유럽과 북미 등에서는 이미 50여 년 전부터 발달해 있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축제는 수출산업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 우리도 잠재력 있는 축제들을 집중 육성해야 할 때다.*

매년 가을이 다가오면 다양한 지역축제가 기대된다. 한국의 지역축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 개막 후 15년간 축제 수가 1천2백여 개에 달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은 지방재정 악화와 통폐합 추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축제 수가 8백여 개로 구조조정되는 변화기를 맞고 있다.

소비 낭비적인 축제들이 구조조정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순기능이 강한 축제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의 축제 경쟁력과 지역의 축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실제 최근 축제의 순기능이 강조되는 문화관광형 축제와 지역개발형 축제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는 10여 년 전 주류를 이루던 단순화합형 축제들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또 지역축제가 지역마케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엔진'으로 변신하고 있는 그 증거를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된다.

친환경농업 때문에 시작한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는 전국적으로 함평의 인지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또 지역 친환경산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오래된 역사문화도시로의 재도약을 노리던 경남 진주는 개천예술제의 이미지를 넘어 야간형 축제인 남강유등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을 도시에 체류시키는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충남 보령머드축제는 보령의 머드 화장품산업의 촉매제 역할은 물론 서해안 대천해수욕장의 활성화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그 외에 안동탈춤페스티벌,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금산인삼축제, 강진청자문화제, 춘천마임축제 등이 대표적인 문화관광형 축제이자 지역개발형 축제이다.

이러한 지역개발형 축제들은 전체 축제의 약 10퍼센트에 해당된다. 지역개발형과 문화관광형 축제의 비중이 현재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증가하고 단순화합형 축제 비중이 축소된다면 지역과 국가의 축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유럽과 북미 등 지방화가 잘된 구미 선진국에서는 지역개발형 축제, 문화관광형 축제전략이 이미 50여 년 전부터 발달해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는 공연예술 페스티벌을 활성화시켜 축제절정기인 8월 한 달에만 8천억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캐나다는 퀘벡의 윈터카니발과 오타와의 윈터루드 등을 통해 추위, 얼음, 눈이란 장애를 역발상적으로 축제화시켰다. 두 가지 축제에만 국한해도 지역브랜드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에 1조원 이상을 기여하는 그야말로 '지역개발전략'이다.

축제는 세계적으로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언급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브라질의 리우카니발과 영국 에든버러의 프린지 페스티벌, 중국 하얼빈 빙설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수출산업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 우리 정부도 잠재력 있는 축제들을 집중 육성해 지역개발전략화, 한류화, 글로벌화를 이루어야 할 때다. G

# Contents

NO. 126 2011.09.21 통권 227호




일러스트·박상훈

기획특집

## 가을은 축제의 계절 멋과 맛을 찾아 떠나자

올가을 지역축제의 향연은 어느 계절보다 풍성하고 문화 예술의 향기 또한 그윽하다. 산에서 거둔 송이버섯과 들에서 난 쌀이며 고추가 반기고 알알이 영근 포도며 사과 향이 흥을 돋운다. 바다가 빠지겠는가. 동해 바다에서 갓 잡은 오징어 대령이오! 어디 땅과 바다에서 거둔 결실뿐이랴. 우리의 소리, 전통 문화유산의 깊은 맛과 잊고 살던 놀이의 즐거움도 빠질 수 없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축제의 흥겨움을 찾아 가을 나들이를 떠나 보자.






**표지 이야기** 하얗게 꽃이 핀 메밀밭이 마치 눈이라도 내린 듯한 모양이다. 메밀꽃 향기 사이로 아이들 웃음이 번진다. 매년 9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열리는 '효석문화제'를 찾은 사람들이다. 사진·조선DB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9.2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16


48


54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6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지난호를 읽고 ]

### 일본의 한류는 계속되어야 한다

125호 한류스타로 소개된 FT아일랜드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2004년 한일문화개방 이후 일본문화에 의해 한국문화가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제는 드라마에 이어 음악까지 각종 차트를 석권하며 일본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우익단체들의 반한류 시위가 있다지만, 일본에 진출한 가수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순수한 열정으로 계속해서 뛰어난 공연을 선보인다면 더 큰 성공의 희열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민균 (전북 익산시 남중동)**

### 4대강 물 관리기술도 세계에 수출되길

125호 기사 중 주한 외국대사들이 4대강살리기 현장을 탐방하는 것을 읽고 많은 국가들이 물 관리에 높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과 생태환경 복원뿐만 아니라 이번 집중호우 때 큰 힘을 발휘한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류문화 수출에 이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물 관리 기술도 전 세계에 널리 수출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황경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 국립국악원 군 위문공연 뜻 깊어

125호 국립국악원의 보은공연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우면산 지역에서 52사단 군장병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해 복구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 노고를 위로하는 이번 공연은 참 뜻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 중 위문공연은 가끔 있지만 국악공연은 흔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군장병들에게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영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 일반계 고교 졸업자 군입영 연기 환영할 만

125호 핫이슈 '일반계 고교 졸업자도 군입영 연기 가능'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동안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던 군입영 시기 선택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경력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은 전역 후 고졸자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열린 고용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유재범 (서울 관악구 행운동)**

### 음주범죄 절대로 면죄부가 될 수 없어

의경으로 군복무를 했기에 124호 공감정책 '경찰서 안 술주정 엄중 처벌 내렸다' 기사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군복무 중 음주 후 폭력상황을 자주 접하다 보니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강화되어 그런 문제를 바로잡고 떨어진 공권력을 회복한다니 매우 기쁩니다. 음주 후 범죄에는 '음주'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열우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 이 기사, 아쉬워요

### "졸업 후 취업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125호 공감 인물 '농협대학 박해상 총장' 기사를 보면서 작지만 수업내용이 알찬 3년제 농협대학이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등록금도 수도권 사립 전문대의 75퍼센트에 불과하고 100퍼센트의 취업률을 자랑한다는데, 모두 농협 쪽으로만 취업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졸업생·재학생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전흥진 (프리랜서·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 "다른 출소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나요?"



출소자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5명당 1명꼴이라는데, 124호에 소개된 출소자가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누리뜰희망IT' 같은 회사가 많이 생긴다면 그들에게 많은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출소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듯싶습니다. 다른 지원 방안이나 다른 사회적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수현 (회사원·부산시 중구 보수동)**

※ 답변은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www.gonggam.korea.kr)에서 해드립니다.

**알 림**

## 생활 속 국토해양 이야기를 찾아주세요



국토해양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국토해양 홍보공모전(우리 땅 · 하늘 · 바다 통통통)'을 열고, 사진, UCC, 인쇄광고, 어린이 만화&그림, 추억사진 등 5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접수한다. '우리 땅 · 하늘 · 바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소통 아이디어, 상상력만 있다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주제에는 주택, 건설 · 수자원, 교통 · 물류, 국토 · 도시, 해외건설, 해양 등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활 밀접 국토해양 모든 정책과 이미지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어린이 공모 부문은 2030년 우리 국토해양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 기간** | 10월 14일까지

**참여 대상** | 제한 없음. 개인이나 팀 응모 가능(팀은 4인 이내 구성)

**공모 내용** | 보금자리, 교통 · 물류, 강 · 바다 등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이미지를 일반공모(사진, UCC, 인쇄광고), 어린이 공모(만화&그림), 특별부문(국토해양 추억 사진)으로 접수

**참여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mltm.go.kr/2011event)에서 접수. 어린이 공모 부문(만화&그림)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시상 내역** | 사진 · UCC · 인쇄광고 부문 각 최우수상 3백만원, 우수상 1백만원 등 총 2천7백90만원 시상

**국토해양부 공모전 www.mltm.go.kr/2011event ☎ 070-7122-8679**

## 핵안보 논문을 공모합니다

외교안보연구원 비확산핵안보센터에서는 2012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핵안보정상회의, 비확산 · 원자력외교 등에 관련된 자유 주제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논문 우수자에게는 상금 시상 외에 핵안보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국제전문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접수 기간** | 11월 1~30일

**참가 대상** | 관련 분야 대학(원)생(학부 및 석 · 박사과정 재학생)

**공모 내용** | 핵안보정상회의, 비확산 · 원자력외교 등에 관련된 자유 주제

**참가 방법** | 외교안보연구원 홈페이지(www.ifans.go.kr)에서 신청서와 서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논문과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e메일(cnns.research@gmail.com)이나 우편 · 방문 접수(USB, CD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3인 이내 공동 응모 가능

**시상 내역** | 최우수상 1편 3백만원, 우수상 2편 각 1백만원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 02-3497-7688**

# 공감퍼즐

| | | | | | |
|---|---|---|---|---|---|
| | | 1 | | | |
| | 2 | | 3 | | |
| 4 | | | | | |
| | | 5 | | | |
| 6 | 7 | | 8 | | |
| | | | | | |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0월 5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가 로

2. 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전북 김제에선 이것 축제도 있답니다.
4. 몸집이 큰 새우. 서해안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것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죠.
5. 도자기로 유명한 이곳, 최근 완공된 남한강의 보(洑)들이 새 명물로 떠올랐죠.
6. 어떤 곳을 거쳐 지남. OO지.
8. 부산 충무동 일대의 바닷가를 이르는 말. OOO 시장.

### 세 로

1.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을 여는 경기도 동북부에 있는 군. 강원도 화천군, 춘천시, 홍천군, 경기도 양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등에 접해 있죠.
2. 땅속.
3. 선두를 달리는 사람.
4. 불경을 집대성한 경전. 팔만 OOO.
7. 기름불. "진주에서 남강에 띄우는 OO놀이는 우리 겨레 최대 수난이었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에 기원하고 있다."

**〈Weekly 공감〉 124호(8월 3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공생 **3** 간병 **4** 일취월장 **7** 관광지 **8** 점자
**세로** **1** 공휴일 **2** 초병 **3** 간장 **5** 월계관 **6** 착지점

**〈Weekly 공감〉 124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기철 ·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김경훈 · 경북 영주시 하망동
김화영 · 부산시 남구 우암동
이원빈 · 광주시 남구 노대동
유지언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득 수준별로 등록금 얼마나 지원받나**

| 연간 소득 인정액 상한 | 국가장학금1유형 국가가 대학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개인에 지급 총 7500억원 | 국가장학금2유형 대학이 국가에서 받아 자율적으로 집행 총 7500억원 | 대학 자구 노력에 의한 인하분 총 7500억원 | 총 부담 완화 2조2천5백억원 |
|---|---|---|---|---|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450만원 | 58만원 (평균) | 38만원 (평균) | 546만원 |
| 1238만원 이하 | 225만원 | | | 321만원 |
| 2074만원 이하 | 135만원 | | | 231만원 |
| 2705만원 이하 | 90만원 | | | 186만원 |
| 5140만원 이하 | × | | | 96만원 |
| 5140만원 이상 | × | × | | 38만원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차상위계층 포함 대학생 1백만명에 장학금

## 소득별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엔 연 5백46만원 장학금"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은 서민 가정에 적지않은 부담이다. 이공계 대학생 자녀가 둘이면 등록금이 2천만원을 넘기도 한다. 결국 당정이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정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핵심이다.

50대 자영업자 김모씨의 딸은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어문계 학과에 재학 중이다. 연간 수입과 재산을 합한 김씨의 소득 인정액은 약 2천7백만원. 김씨로서는 한 해 7백65만원에 달하는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 김씨는 최대 1백86만원까지 덜 내고 딸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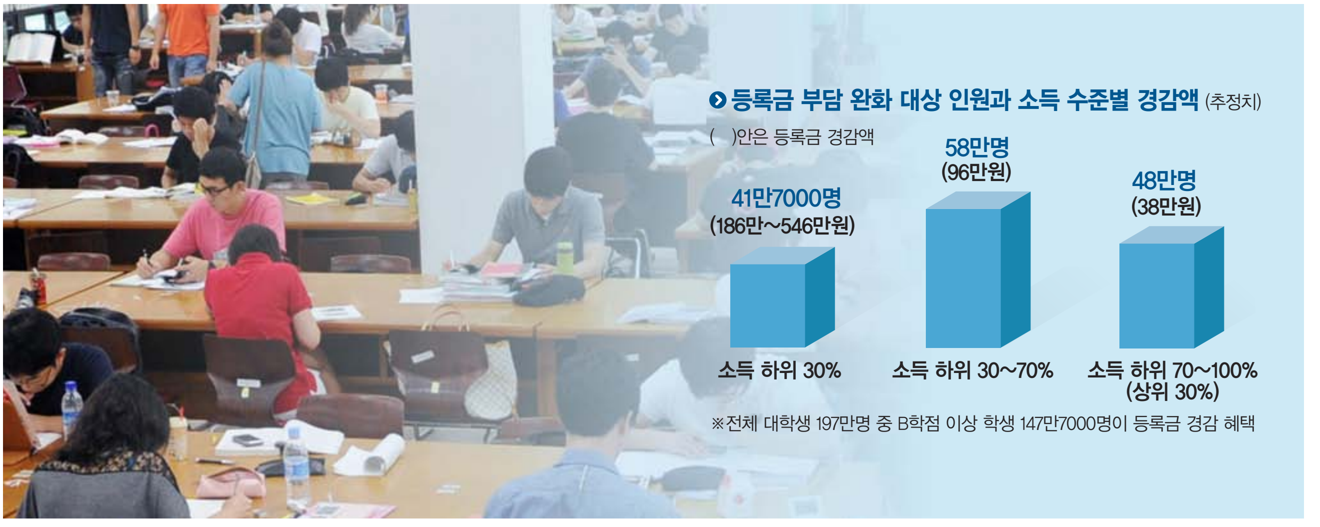
**국가장학금 1조5천억원 등 2조2천5백억원 지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9월 8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대학 자구 노력을 통한 7천5백억원을 비롯해 모두 2조2천5백억원을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차등 제공하면서 대상 범위는 늘렸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그 가정의 대학생에게 지급하던 국가장학금 (연간 4백5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분위 3분위(연소득 2천7백5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까지 늘어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의 대학생 5만3천여 명은 내년 평균 5백46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 소득분위별로 1분위는 3백21만

조선DB




원, 2분위는 2백31만원, 3분위는 1백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경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표 참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청과물 상가에서 일하는 최모(48)씨는 "경기도 소재 이공계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동안 한 학기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대느라 뼛골이 빠지게 일만 했다"며 "정부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니 예전보다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나타냈다.

### 자구노력 대학에 7천5백억원 차등 배정

국가장학금 1조5천억원 가운데 절반인 7천5백억원은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7천5백억원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 일정비율로 배분된다. 대학은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과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및 생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각 대학에 배정할 7천5백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대학의 자구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책으로 쓸 계획이다. 대학의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지원금 배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자구노력 점검을 위한 양해각서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각 대학은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하는 데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 노력에 따라 5퍼센트가량 등록금이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우리나라 전체 1천7백만 가구 가운데 부동산 등의 재산과 수입, 부채를 종합환산한 소득인정액 하위 70퍼센트 가정에 속한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올해보다 22퍼센트 이상 줄어든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99만7천여 명에 달한다. 교과부는 "1백만명가량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 '든든학자금' 이자부담 줄여 이용률 높이기로

'든든학자금' 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재학 중 국가로부터 빌린 학자금을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좋은 도입취지에도 이용률이 낮다. 지난해 1학기에 도입됐으나 누적이용자는 38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이자부담 경감, 이용제한 축소 등을 통해 이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20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교과부는 "오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학등록금의 추가 인하 여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대학생 등록금 완화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 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G

글 · 이동훈 기자

# "시장경제, 공생발전으로 새롭게 진화"

##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는 선별적·맞춤형 복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KBS특별대담 '이명박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유예, 학력차별 철폐 및 고졸자 채용, 청년창업, 복지확충, 재정건전성, 물가 및 전세대란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생발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KBS특별대담 '이명박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정치·경제·복지·남북관계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내 '공생발전'을 강조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방송에는 오종남 서울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방송인 정은아씨 등이 참석했다. 국민들도 KBS 인터넷 홈페이지나 청와대 SNS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공생발전은 중도실용, 동반성장, 대기업·중소기업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서 공생발전과 관련해 대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은 수출이 잘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노력도 있지만 정부 정책도 있었다"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보고 '너는 우리 때문에 먹고 산다. 우리 회사에 납품하고 산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오늘의 시대를 못 간다"고 말했다.

### "청년창업, 한번 실패해도 재기하게 돕겠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탐욕을 예로 들면서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나온 정부의 감세(減稅)유예정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대기업이 이익이 좀 났으니까 2~3년 법인세 감세를 유예하는 대신 어려운 중소기업은 예정대로 감세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확산되기 시작한 학력차별 철폐와 고졸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대학을 가야 취직할 수 있고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된다"면서 "정부는 고등학교 출신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나도 임기 중에 하자는 대로 펑펑 쓰면 인심도 얻고 지지율도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들, 딸 세대에게 큰 부담이다. 오늘 내가 쓰는 정책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직업재훈련과정을 위한 예산 증액,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급여 보조와 세금 우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시청자 지인배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려 청년창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두 번, 세 번까지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창업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도 대기업에 뺏길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를 통해 보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더라도 복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세대란, 금년이 고비…소형주택 공급 확대"

하지만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 재벌총수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똑같이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가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 확충을 약속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공생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왼쪽부터 황상무 KBS 앵커, 오종남 서울대 교수, 이명박 대통령, 홍성걸 국민대 교수, 방송인 정은아씨.

이 대통령은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60조~80조가 필요하다"면서 "나도 임기 중에 하자는 대로 펑펑 쓰면 인심도 얻고 지지율도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들, 딸 세대에게 큰 부담이다. 오늘 내가 쓰는 정책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물가문제와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하도 배추 파동이 나서 배추 가격은 매일 체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춧값이다. 금년에 이미 흉작이 되어 버렸다"면서 김장철을 걱정했다. 또한 물가가 계속 오르는 데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거듭 피력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기왕이면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재래시장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세대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나도 3년에 한 여덟 번 정도 이사해 본 적 있다"면서 내집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전세대란에 대해 "집이 투자목적에서 주거목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금년이 고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소형임대주택·아파트,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남북정상회담, 평화와 번영 위해선 언제든 하겠다"

이 대통령은 남북간 공생발전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통과해 한국에 이르는 러시아가스관사업 가능성에 대해 말하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통과료가 연간 1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표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이 공히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면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지는 것"이라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북한당국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G

글·배진영 기자




일러스트·유재일

# ‘같은 일’ 하는 비정규직에도 햇살을

##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정부가 1/3 지원… 국민임대주택 공급 우대키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넓히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소득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의 문제가 비정규직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7.4퍼센트 수준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돼 왔다.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확충된다. 먼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규직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86퍼센트, 87.5퍼센트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2.1퍼센트, 46.9퍼센트에 그친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률은 더욱 저조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중 3분의 1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의 1백20퍼센트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다.

대학의 장학생 선발, 기숙사 및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자 선정 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저소득 비정규

직 근로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힌다. 근로자의 복지수요가 높은 긴급생활 유지비와 자녀학자금 등을 대부 항목에 추가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이 사라진다.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단기고용이 남용되는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없애

수급업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 강도도 높인다. 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엔 도급업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파견근로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엔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 절대금지 업무에 한해서만 부과되던 직접고용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또 사용사업주는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산업안전보건 등 사용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한 파견근로자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먼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직접고용을 유도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 한도를 현행 1퍼센트에서 5~6퍼센트까지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1명을 고용하면 1천만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공제한도가 커지는 만큼 감면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확충된다. 직업능력을 제고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지원금액은 현행 연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우선 지난 7월 제정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현장에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보호도 강화한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재해 예방 조치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내용**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충**
-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지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으로 긴급생활 유지비·자녀학자금 대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저소득 근로자 우대

**근로조건 보호**
-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수습기간 적용 제외
- 최저임금법상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 불법파견시 사용기간 상관없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화

**정규직 이행기회 확대**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 지원금액 인상
- 고숙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 확대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넓힌다.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좀더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 사내하도급 산재예방 의무 서비스업 확대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정해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직종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G

글·변형주 기자

# 서민들·중소기업 세부담 줄어든다

## 中企 취업 젊은이에 3년간 소득세 면제… "재정건전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내가 낼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11년 세법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나온 세제개편안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확충에 조세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려는 점이 돋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투 외에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투자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주된 골자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도 엿보인다. 중소기업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오는 2013년까지 2년간 세액공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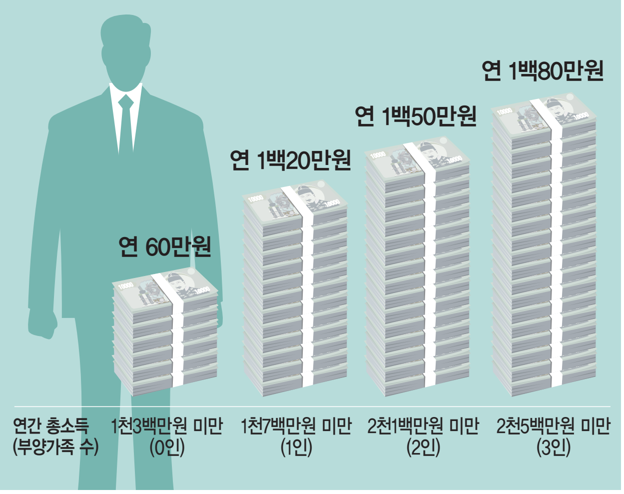
오는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백 퍼센트 전액 면제해 주는 획기적 안도 나왔다.〈오른쪽 페이지 참조〉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5천만원으로 확대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의 공제한도를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연구개발(R&D) 비용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린 것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의 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제조업 위주의 현행 조세감면 업종에 창작예술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연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도 돋보인다.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전기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 전기버스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버스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4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표 참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편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최근 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개편방향도 주목할 만하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총급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모두 7천3백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층별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9천9백억원가량 느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세부담은 2천6백억원가량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세법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글·이동훈 기자

# 중소기업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 안 낸다

그림 · 유남영





내년이면 모습을 드러낼 영산강하굿둑 배수갑문과 자연형 수로식 어로 조감도.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 조감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 영산강, 이상홍수에 철통방어망 갖춘다

## 하굿둑 배수갑문·수로 확장 등 구조개선 사업 내년 말 완공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것이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이다. 서해의 조수 영향 차단과 하천의 수위조절을 위해 만든 영산강하굿둑은 나날이 정도를 더해 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배수갑문과 수로를 확장하는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2012년 말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이상홍수에도 더욱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이름 석자에서 삭힌 홍어의 풍미와 남도가락이 풍겨 나올 것만 같은 영산강. 나주평야를 살찌우는 젖줄인 영산강을 조수(潮水)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 수위를 안정시키고자 만들어진 것이 영산강하굿둑이다.

###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 구 분 | 사업명 | 내용 |
|---|---|---|
| 1공구 | 영산호배수갑문 확장 | · 수문 240m→480m로 확장<br>· 교량 1개소 신설 |
| | 어도 신설 | · 자연형 수로식 |
| 2공구 | 영암호배수갑문 확장 | · 수문 80m→410m로 확장<br>· 교량 1개소 신설 |
| 3공구 | 영암연락수로 확장 | · 15m→140m로 확장 (총길이 5,622m)<br>· 교량 3개소 신설 |
| | 영암제수문 확장 | · 수문 30m→150m |
| | 금호제수문 신설 | · 수문 30m |

조수의 영향을 차단하고 하천 수위조절을 할 수 있도록 1981년 전남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 사이 바다에 석재를 쌓아 만든 영산강하굿둑은 길이 4천3백50미터, 최대 높이 20미터에 이른다.

영산강하굿둑은 그동안 이 지역의 홍수와 가뭄 등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하굿둑 안쪽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최근 급증하는 기상이변에 대응 능력이 떨어지면서 보완이 절실해졌다.

### 2009년에 사업착수 약 40퍼센트 공정 마쳐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9년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4개년 계획을 시작, 9월 현재 40퍼센트가량 공정을 마쳤다.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을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의 영산강하굿둑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랜드마크 건설도 겸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영산호와 영암호 연락수로에 만들어질 영암제수문 조감도. 수위조절을 위한 롤러게이트와 통선을 위한 섹터게이트가 조합된 '하이브리드형'이다.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 신동원 사무관은 "영산강 지역은 하굿둑 설치로 인해 그동안 홍수와 가뭄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기상변화로 홍수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여름 중부지방을 덮친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를 분석하면 영산강하굿둑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만약 지난 7월 말 서울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영산강 유역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당지역이 침수피해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 등이 발생해 52명이 사망하고 3천7백6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실제로 지난 1989년 태풍 '쥬디'가 지나며 하루 동안 3백35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광주와 나주, 함평 등지의 1만5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 2004년 태풍 '메기'가 지나면서 폭우를 뿌려 나주, 화순, 영암 지역 일대 1만여 헥타르가 침수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재해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 일원에 걸친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은 크게 3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먼저 1, 2공구에서는 영산강에 집중되는 홍수량을 신속히 흘려보내기 위해 영산강하굿둑과 영암호방조제의 배수갑문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영산강하굿둑 배수갑문은 기존의 2백40미터에서 4백80미터로 두 배 확장된다. 영암호방조제의 배수갑문은 80미터에서 4백10미터로 무려 3백30미터가 늘어난다. 또 영산강하굿둑 배수갑문 한쪽에 자연형 어로를 만들어 바다와 강을 이어 줌으로써 생태계 복원을 꾀하게 된다.

3공구에서는 영산호와 영암호를 잇는 연락수로를 폭 1백40미터(기존 15미터)로 대폭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금호호와 바다 사이에 놓인 금호제수문도 30미터 폭 규모로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 "배수갑문은 내년 장마 전에 공사 끝낸다"

현재 배수갑문이 확장되는 공사 구간에서는 갑문이 설치될 지점의 제방 주변에 가물막이를 쌓아 지상에서 제작되고 있는 갑문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신동원 사무관은 "영산강하굿둑 개선 사업은 2012년 말 완공 예정이지만 날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내년 장마철이 오기 전 배수갑문 설치 공사를 끝낼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영산강 유역의 홍수처리 능력이 48퍼센트 증가하여 최근의 기상이변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사무관은 "영산강하굿둑 개선 사업으로 친환경 어도가 만들어지고 랜드마크 타워, 공원, 국내 최초·동양 최대의 섹터게이트 수문 등이 설치됨으로써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 자전거길·산뜻한 보

# 4대강 살아났다 웃음꽃 피어났다

고향도 찾고, 4대강살리기 사업의 결실도 보고. 이번 추석연휴 동안 임시 개방한 4대강 16개 보(洑)에 많은 귀성객과 지역주민들이 방문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개방한 4대강 16개 보에 2만5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한강 방문객들은 새로 조성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체험하고, 이포보 등 3개 보와 캠핑장, 피크닉장,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을 감상했다. 지난 9월 12일 한강 3개 보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았으며(타 거주지 방문객이 47퍼센트), 30대 이하 방문객이 41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금강에서는 공주보에 조성된 1천5백 주의 소나무 군락이 인기를 끌었으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세종보 주변까지 둘러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영산강에서는 지난 8월 31일 황포돛배 통선문 시연행사를 가진 죽산보를 찾는 방문객들이 이어졌다. 낙동강은 우포늪의 따오기를 형상화한 창녕합천보, 가야문화를 상징화한 강정고령보 등 경관이 수려한 보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16개 보 방문객(3천1백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6퍼센트가 "4대강살리기 현장을 둘러본 결과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6일에는 4대강 자전거길 개방에 앞서 자전거동호회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4대강별로 종주 라이딩을 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4대강살리기로 총 1천5백92킬로미터의 자전거길이 구축된다.

글·박경아 기자


1

연합


2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연합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1** "보 위를 지나는 기분은 바로 이런 것!" 충남 부여군의 금강 백제보로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2** 사람이 웃는다. 강이 따라 웃는다. 추석연휴를 맞아 경기도 여주군의 한강 이포보를 찾은 관람객들이 새로 난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

**3** 태풍 '꿀랍'이 비를 뿌려도 우린 보러 간다. 우산을 들고 경북 상주시 상주보를 찾은 사람들.

**4**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동호회원들이 9월 6일 사전점검을 위해 남한강변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

**5** 전망대는 널찍한데, 왜 이렇게 몰려서들 보는 거야? 대구시 달성군에서 멀리 낙동강 달성보를 바라보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의 뒤통수에 호기심이 듬뿍 묻어난다.

**6**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강 여주보 전경. 널찍한 공도교 위로 자전거가 지나고 있다.

Government Call Cente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국민콜을 외자! 삼행시를 짓자!

삼행시 짓고 경품타고!

## 도전!! 110국민콜 삼행시 백일장 Event~!!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 "110국민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110국민콜을 축하하며 톡톡튀고 재미있는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멋진 삼행시를 지어주신 분들을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11.09.19 ~ 09.30**

**참여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110국민콜 홈페이지 http://www.110.go.kr
110국민콜 블로그 http://110callcenter.tistory.com 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국민콜 HAPPY EVENT

이벤트

## 삼행시 백일장 Event~!!

110 국민콜이 하는일, 110 국민콜이 내게주는 의미 등의
110 국민콜과 관련된 내용을 **삼행시**에 녹여보세요.
창의력이 높을수록 평가점수도 올라갑니다~

국

민

콜

삼행시 이렇게 지으면 되요.

**국** 민의 소리를 늘 귀기울여 듣는
**민** 원 업무 상담 전화! 지금 당장
**콜** 하세요! 따릉따릉

이벤트 응모하기GO

## 이벤트응모하고 경품받자!

이벤트 기간 : 9월 19일 ~ 9월 30일
당첨자 발표 : 10월 20일
이벤트 경품발송 : 10월 28일
(재세공과금 및 당첨자 확인 스케줄 포함)

* 실제 경품은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며,
사정상 경품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등 폴라로이드　2등 미니가습기　3등 문화상품권　4등 베이커리 기프트콘

기 획 특 집

# 맛과 멋 그리고 쉼 지역축제로 초대합니다

올가을 지역축제의 향연은 어느 계절보다 풍성하고 문화 예술의 향기 또한 그윽하다. 산에서 거둔 송이버섯과 들에서 난 쌀이며 고추가 반기고 알알이 영근 포도며 사과 향이 흥을 돋운다. 바다가 빠지겠는가. 동해 바다에서 갓 잡은 오징어 대령이오! 어디 땅과 바다에서 거둔 결실뿐이랴. 우리의 소리, 전통 문화유산의 깊은 맛과 잊고 살던 놀이의 즐거움도 빠질 수 없다.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축제의 흥겨움을 찾아 가을 나들이를 떠나 보자.



일러스트 · 박상훈



하얗게 꽃핀 봉평 메밀밭을 배경으로 한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기린 '효석문화제' 기간 중 강원도 봉평면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신만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 파란 하늘, 황금 들녘… 잔치는 시작됐다

## 관광객 유치 ·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수 효과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사방이 축제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즐기면서 행복을 찾는 축제의 장(場)은 찾아드는 관광객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급증하고 있지만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내 고장만의 개성 넘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가을은 하얗게 시작된다. 하얗게 꽃이 핀 메밀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백일장과 시화전, 봉숭아 물들이기, 구수한 메밀전… 봉평 효석문화마을 일원에서는 이렇게 자연과 문학을 즐기는 '효석문화제'가 펼쳐진다.

어느덧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메밀을 작품무대인 봉평 특산물로 만들어 버렸다. 메밀꽃이 만개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설 속 장돌뱅이들이 메밀막걸리에 안주 삼아 먹던 메밀국수, 메밀묵, 메밀전병 등은 축제를 찾는 이들이 즐겨먹는 먹거리가 됐다. 올해로 13회째인 '효석문화제'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메밀꽃과 함께하는 문학이야기'를 주제로 열려 추석연휴 동안에만 13만여 명이 찾았다.

1990년 시작된 '효석문화제'는 메밀꽃과 소설, 자연과 문학이 함께하는 강원도 대표축제. 올가을 전국에선 갖가지 지역축제가 펼쳐진다.

**봉평 '효석문화제'는 문학과 함께하는 대표 사례**

강원도에서는 '양양 송이축제(9월 22~28일)', '동해시 오징어축제(9월 24~25일)' 등이 '효석문화제'의 뒤를 잇는다. 이밖에도 경기도 가평군의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9월 30일~10월 3일)', 충남의 '천안흥타령축제(9월 28일~10월 3일)', 충북의 '영동난계국악축제(10월


조선DB



7~10일)', 경남 진주시의 '남강유등축제(10월 1~12일)', 경북의 '풍기 인삼축제(10월 7~12일)', 전북의 '김제지평선축제(9월 29일~10월 3일)', 광주의 '김치대축제(10월 15~19일)' 등 풍성하다.

올해 열리는 지역축제는 모두 7백63개(문화체육관광부 집계).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자원 개발 욕구와 질 높은 문화적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1980년까지 전국의 지역축제는 1백여 개에 불과했으나 1981~1985년 61개가 신설됐고, 1991~1995년 1백50개가 늘었다. 1996~2000년 3백58개가 급증, 2006년 총 1천1백76개로 집계됐다.

그중 예술문화축제(21.9퍼센트)가 가장 많았고, 전통민속축제(17.2퍼센트), 관광문화축제(10.5퍼센트), 관광특산축제(17.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 31년 이어온 금산인삼축제는 지난해 관광객 75만명 몰려

2006년을 정점으로 이후 지역축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파악한 결과 ▲2007년 7백16개 ▲2008년 9백26개 ▲2009년 9백21개 ▲2010년 8백23개로 2006년 피크를 이룬 이후 점진적인 감소세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축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을 펴온 것은 지역축제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8월 열리는 세계적 예술축제인 '에딘버러 축제'의 고장인 영국 에딘버러는 일년 내내 10여 종의 축제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20배가 넘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늘고 고용창출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 이웃인 일본도 삿포로 눈축제 등 지역축제가 세계적 관광상품으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산인삼축제를 지역축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올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관 광장에서 열리는 금산인삼축제는 올해로 31회째다.

'2010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금산인삼축제에는 지난해 모두 7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총 9백35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금산인삼축제는 인삼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1999년부터 국제인삼교역전을 개최했으며 지난해 14개국 42명의 바이어가 참가, 10년 동안 무역부문이 20배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산군청 문화공보관광과의 금산인삼축제 담당자 곽병국씨는 "앞으로도 금산군은 축제를 금산인삼 브랜드 '금홍'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 아시아권은 물론 미주 유럽 등지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불러들여 축제를 알리고 인삼수출 다변화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성과 축제의 진정성이 균형 이뤄야 성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유정아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축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즉 일회적인 이벤트성 행사 진행, 과도한 관광상품화에 따른 축제정신 결여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지역축제들이 통폐합돼 통계 숫자가 줄어든 것"이라며 "지역축제가 발달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금 우리의 지역축제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또 경제성을 지역축제의 성공지표로 삼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 예로 청도 소싸움을 보자면 경제성이 강조되다 보니 결국 돈놀이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축제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경제성과 축제로서의 진정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단기적인 경제 성과보다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 지역 이미지 제고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 등 장기적 효과에 주목해 지역축제를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 한강 무대로 낭만의 재즈 · 도자기축제

## 가평 자라섬 재즈, 이천 쌀 · 도자기, 소래포구 축제도 가을손님 채비

가을, 잔치는 시작됐다. 경기도 곳곳에서는 '낭만'과 '풍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기다린다. 가평군 자라섬에서는 국제적인 재즈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재즈페스티벌이, '쌀과 도자기의 고장' 이천에서는 가을의 풍성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쌀문화축제와 도자기축제가 펼쳐진다.

###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10월 1~3일)

### 한강에 퍼지는 재즈선율 '아시아 최대 잔치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해외 유명 재즈아티스트들이 대거 참가하는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아시아 최대의 재즈페스티벌로 자리잡은 '제8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이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자라섬과 가평읍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페스티벌 사상 최대 인원인 16만8천명이 참가해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올해 그 열기가 더욱 뜨겁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홍보 담당 최설희 대리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과 한류 영향 등으로 올해는 역대 최다 인원이 자라섬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레디 콜을 비롯해 10인조 밴드 타워 오브 파워, 캐틸 비외른스타드, 커트 로젠윈클 스탠다즈 트리오 등 내로라하는 재즈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장식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제5회 자라섬 국제재즈콩쿨 대회' 등 부대행사도 연다. 올해는 '자라섬은 생태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방문객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배포하는 등 환경 운동도 벌인다.

이천 도자기축제 (9월 24일~10월 23일) & 쌀문화축제 (11월 3~6일)

## 농경과 불… 전통의 향기 넘치는 체험마당




이천 쌀문화축제 행사 중 하나인 임금님 진상행렬.

'제25회 이천도자기축제'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천시 설봉공원 일원에서 '불의 여행'을 테마로 '제6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도자인테리어 소품관', '도자막걸리 1백인쇼룸' 등 도자 관련 전시를 비롯해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장작가마불지피기 퍼포먼스 공연이나 이색 퍼레이드도 펼쳐진다.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로 꼽힌 이천쌀문화축제는 매년 10월, 축제 기간 동안 50만명 이상 찾는 국내 대표적인 농경문화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3회를 맞는 올해는 '고향의 정취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주제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천 설봉공원에서 열린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연주철 농촌관광팀장은 "한국의 전통 마당놀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천쌀문화축제는 올해 관광객들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화성문화제 (10월 7~10일)

## '님이 오십니다' 주제로 정조대왕맞이 재연

수원화성문화제는 세계문화 유산인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매년 10월 '수원시의 날'을 전후해 열리는 수원시의 대표적 축제다. 48회를 맞는 올해는 '님이 오십니다'라는 주제로 10월 7일부터 4일간 궁중 및 서민 생활 재연과 함께 정조대왕맞이 축하행사 등이 열린다.

개막일에 여는 '화령전 작헌의'를 시작으로, '정조대왕 친림 과거시험', '정조대왕 야간군사훈련' 등 재연 행사가 이어진다. '정조대왕 능행차 및 시민 퍼레이드', '짚신신고 화성 걷기', '화성 골든벨', '명사와 함께하는 수원 화성 인문학 아카데미' 등 시민 참여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10월 9일에는 수원시 용주사에서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장수 어르신 위안잔치 '백수연잔치'와 효행상 시상식도 개최된다.

인천 소래포구축제 (10월 13~16일)

## 수도권 재래어항서 펼치는 갯벌·수산물 잔치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선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11회 인천소래포구축제-소래야 놀자'를 마련한다.

연간 5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소래포구는 축제 기간 동안에만 1백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수도권 인기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메인 무대에선 풍물단 등의 공연과 콘서트가 이어지고 보조무대에선 수산물경매가 진행된다. 습지생태공원에서는 갯벌체험과 생태습지갈대체험 등이 열린다. '회 빨리 뜨기 경연대회'나 '서해안풍어제'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G

글·박근희 기자

| | | | |
|---|---|---|---|
| **서울** | | | |
| 서울불꽃축제 | 여의도한강공원 | 10월 8일 | 02-6366-8326 |
| 서울억새축제 |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 10월 14~23일 | 02-300-5539 |
| 대학로소극장축제 (D.FESTA) | 혜화동 대학로 일대 | 9월 24일 ~11월 7일 | 02-741-4188 |
| 서울북페스티벌 | 덕수궁 | 10월 7~9일 | 02-320-8859 |
| 세종뜨락축제 | 세종문화회관 | 10월 12일 ~11월 6일 | 02-399-1111 |
| 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 문거리 일대 | 10월 7~8일 | 02-969-4793 |
| 서울세계등축제 | 청계천 (청계광장 ~세운교) | 11월 4~20일 | 02-120 |
| **경기** | | | |
| 수원음식문화축제 | 팔달구 화성행궁 주차장 | 10월 6~9일 | 031-228-2228 |
| 고양국제특산품 페스티벌 | 고양호수공원 고양꽃 전시관 | 10월 1~16일 | 031-905-3590 |
| 고양호수예술축제 | 고양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원 | 10월 7~9일 | 031-909-9000 |
| 고양행주문화제 | 고양시 행주산성 등 | 10월 7~9일 | 031-909-9000 |
| 소요단풍문화축제 | 동두천 소요산 | 10월 22~23일 | 031-860-2063 |
| 포천운악산단풍축제 | 운악산 입구 | 10월 23일 | 031-538-3834 |
| 파주개성인삼축제 | 파주시 임진각 주차장 | 10월 14~16일 | 031-940-5283 |
| 율곡문화제 | 파주시민회관, 율곡선생유적지 일원 | 10월 7~8일 | 031-941-2425 |
| 다산문화제 | 다산유적지 정약용 생가 일원 | 9월 30일, 10월 1~2일 | 031-590-4242 |
| 명성황후숭모제 |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 11월 17일 | 031-887-3576 |
| 회룡문화제 | 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북부청사, 시청앞 | 10월 7~9일 | 031-872-5678 |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산과 바다… 자연을 찾아 떠나는 맛 기행

## 횡성 한우, 양양 송이·연어, 동해안 곳곳 오징어축제로 들썩

강원도는 산과 바다의 고장이다. 따라서 이 지역 가을 축제의 키워드는 '자연'이다. 높은 산과 깊은 골에서는 도시에서 만날 수 없는 귀한 식재료가 자라고 맑고 푸른 바다에는 건강한 생명이 숨을 쉰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먹거리를 만나는 여행이다. 제주에서는 세계인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제주 올레걷기축제'가 열린다.

제주 올레걷기축제 (11월 9~12일)

### 세계인과 함께 하는 '놀멍 쉬멍 걸으멍'

전국에 걷기 열풍을 일으킨 제주의 올레길에선 세계인이 참여하는 걷기대회가 열린다. 11월은 제주에서 걷기에 가장 좋은 달이어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는 올레 6~9코스, 51.6킬로미터에 걸쳐 진행된다.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인 향기도 느낄 수 있다. 코스마다 크고 작은 공연이 펼쳐지며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제주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다. 10월 16일까지 홈페이지(www.ollewalking.c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선착순 1만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횡성 한우축제 (10월 5~9일)

### 한우로 만든 먹거리와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지형이 가장 높은 고장이다. 산악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고 높고 너른 들판이 산재해 있다. 고랭지 농업과 축산업이 활발한 이유다. 강원도가 자랑하는 '횡성한우'가 대표적이다.

강원도 횡성에서 한우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횡성


조선DB

제주 올레걷기축제에서는 제주의 자연과 음식, 예술을 만날 수 있다.



횡성 한우축제는 안심 먹거리로서 한우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우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한우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좀더 '한우'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지난겨울 구제역으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 축산경제에 활기를 되찾고 안전한 먹거리로서 한우를 알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백화점식의 행사 부스 운영에서 탈피해 횡성한우와 한우농경문화에 확실하게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한우에 대한 모든 것이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먹거리 관련 행사가 많이 준비됐다. 횡성한우 판매점과 시식코너는 기본이고 한우로 만든 햄버거, 소시지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달구지 로드쇼, 외양간, 테마목장 등 한우농경문화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횡성 지역의 특산물인 안흥찐빵, 더덕도 맛볼 수 있다.

동해 오징어축제 (9월 24~25일)

## 맨손으로 오징어 잡기 '재미도 있고 실속은 덤'

가을은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계절이다. 이에 따라 동해안 곳곳에서 오징어축제가 열릴 계획이다. 동해시에서도 오징어축제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묵호항 개항 70주년 행사가 함께 열려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동해 오징어축제는 크게 공개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로 꾸며진다. 공개행사로는 거리퍼레이드, 콘서트, 불꽃 페스티벌 등이 준비된다. 체험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맨손고기잡기, 오징어 낚시, 어촌음식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양양 송이축제 (9월 29일~10월 3일)

## 해돋이의 고장에서 즐기는 송이버섯의 맛

'해돋이의 고장' 양양에서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개최된다. 두 축제는 모두 이곳 자연이 있어 가능한 행사다. 설악산을 비롯한 심산유곡과 동해바다와 내륙을 이어 주는 남대천이 그것이다.



양양 송이축제는 지난해 6천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양양 송이축제는 매년 가을 송이 생산철에 진행된다. 올해는 9월 29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송이산지에서 자연산 송이의 생태를 관찰하면서 채취할 수 있다. 지난해 6천명의 외국인이 참여한 '외국인송이채취 프로그램'을 비롯해 송이보물찾기, 멸치후리기, 송이숲 밤줍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남대천에서는 '양양 연어축제'를 만날 수 있다.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힘찬 몸짓을 볼 수 있는 '체험학습형 축제'다. 대표적인 즐길거리는 '맨손잡이체험'이다. 40분간 연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이다.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연어를 몰아 맨손잡이 체험장으로 이동시켜 보는 연어몰이 체험도 할 수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 | | | |
|---|---|---|---|
| **강원** | | | |
| 횡성 한우축제 | 횡성군 섬강둔치 일원 | 10월 5~9일 | 033-340-2223 |
| 소양강문화제 | 춘천시 의암공원 일대 | 9월 23~25일 | 033-254-5105 |
| 고성명태와 바다축제 | 고성군 거진항 일대 | 10월 27~30일 | 033-680-3212 |
| 강릉 커피축제 | 강릉시 일대 | 10월 21~31일 | 033-647-6802 |
| 동해시 오징어축제 | 동해시 묵호항 일원 | 9월 24~25일 | 033-530-2631 |
| 양양 송이축제 | 양양군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 9월 29일~10월 3일 | 033-670-2724 |
| 양양 연어축제 | 양양군 남대천 일원 | 10월 22~23일, 10월 29~30일 | 033-670-2724 |
| 김삿갓문화제 | 영월군 김삿갓유적지 일원 | 10월 1~3일 | 033-370-2911 |
| 정선아리랑제 | 정선군 정선읍 일원 | 9월 30일~10월 3일 | 033-563-2646 |
| 오대산불교문화축전 | 평창군 월정사 | 10월 14~16일 | 033-339-6800 |
| 주문진 오징어축제 | 강릉시 주문진항 일원 | 10월 1~13일 | 033-662-4532 |
| 원주한지문화제 | 원주시 한지테마파크 일원 | 9월 28일~10월 2일 | 033-766-1366 |
| 춘천봉황등축제 | 춘천시 공지천 일대 | 9월 30일~10월 9일 | 033-241-6776 |
| 안흥찐빵축제 | 횡성군 안흥찐빵마을 일원 | 10월 1~3일 | 033-340-2703 |
| **제주** | | | |
|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 서귀포시 추사적거지 일원 | 10월 31일 | 064-760-2481 |
| 서귀포칠십리축제 | 서귀포시 칠십리 시공원 및 천지연폭포 일원 | 10월 1~3일 | 064-760-2651 |
| 제주올레걷기축제 | 제주올레 6~9코스 | 11월 9~12일 | 064-762-2190 |
| 최남단방어축제 |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원 | 11월 10~13일 | 064-794-8032 |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王都의 위엄…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 강경 젓갈·금산 인삼엑스포·영동 난계국악축제·충주 우륵문화제도 열려

충청권의 축제는 금강 물줄기를 따라 열린다. 백제의 도읍지였던 부여와 공주에서는 백제문화제가 열린다. 57회를 이어오는 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영광을 재연하는 웅진성퍼레이드 대백제군단기마행렬 등의 장대한 퍼포먼스와 민속공연, 주민참여행사 등이 펼쳐진다. 금강 줄기가 지나가는 강경에서는 강경발효젓갈축제가, 금산에서는 세계인삼엑스포와 인삼축제가, 충북 영동에서는 난계국악축제가 열린다.

**백제문화제 (10월 1~9일)**

### 백일장 등 주민참여 늘려

이 가을, 백제의 중심부였던 충청지역의 축제는 금강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0월 1~9일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리는 제57회 백제문화제다. 백제문화제는 1955년 부여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성충·흥수·계백의 세 충신과 낙화암에서 산화한 백제 여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 데서 비롯됐다.

1966년 제12회부터는 부여와 공주에서 동시에 행사를 치렀고, 1979년부터는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행사를 열었다. 2007년 이후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의 제안으로 부여와 공주가 함께 치르는 백제문화제로 자리매김했다. 백제문화제에는 2007년에는 1백20만명, 2008년에는 1백5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작년에는 부여 백제문화단지 완공을 기념해 2010세계대백제전의 형태로 행사가 크게 치러졌는데, 3백69만명이 다녀갔다.

올해 백제문화제에서는 부여에서 26개, 공주에서 20개 행사가 펼쳐진다. 웅진성퍼레이드(공주), 4대왕 추모제(공주), 대백제기마군단 행렬(부여), 백제 성왕 사비 천도 및 정도(定都)고유제(부여), 백제역사문화행렬(부여) 등의 행사를 통해서는 화려하고 강대했던 백제의 모습이 재연된다.

탄천장승제, 신학리 지게놀이, 은산 별신제, 부여 용정리 호상놀이 같은 민속공연, 해외예술단 공연·국제학술회의·매사냥 시연 같은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진다.


충청남도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는 백제의 영광을 재현하는 백제문화제가 열린다. 사진은 대백제기마군단 행렬 모습.

서은성 백제문화제 감독은 "금년에는 작년 같은 커다란 퍼포먼스는 줄이는 대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백일장이나 창작무용대회, 공모전, 웅진골 체험마당 등 아기자기한 행사들을 많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예상 관람객 규모는 1백20만명으로 평년 수준이다. 서 감독은 "당분간 규모는 다소 줄이더라도 다양한 시도들을 해 본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60회 백제문화제를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발효젓갈축제 (10월 19~23일)**

## 관광객 젓갈김치 담가가기 등 다양한 행사


조선DB

강경젓갈축제에 참여한 관광객이 젓갈통을 지게에 지고 달리기를 하고 있다.

금강과 논산천, 강경천이 만나는 곳에 논산 강경포구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 강경포구를 중심으로 금강유역에서 나는 물산을 충청 일원은 물론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강경시장이 번성했다. 이곳 강경에서는 10월 19~23일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열린다. 황산골 선비밥상, 젓갈주먹밥 만들기, 관광객 젓갈김치 담가가기, 양념젓갈 담그기, 젓갈 마당쇠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금강 상류변에 위치한 금산에서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고 있다(10월 3일까지).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국제인삼심포지엄·국제인삼교역전·공연·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중 2백29만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 21~30일에는 금산인삼축제도 열린다.

**난계국악축제 (10월 7~10일)**

## 국악의 향기를 찾아서


영동군청

난계국악축제 사물놀이. 충북 영동에서는 이외에 대한민국와인축제도 열린다.

금강 물줄기의 한 갈래가 흘러 들어가는 충북 영동군에서는 조선시대의 음악가인 난계(蘭溪) 박연(朴堧) 선생을 기리는 난계국악축제가 10월 7~10일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박연선생숭모제, 전국시조경창대회, 난계국악단공연, 국악기 제작, 국악난장공연, 난계국악교실, 퓨전타악공연 등이 열린다. 한편 남한강변 충주에서는 우륵을 기리는 우륵문화제가 9월 21~25일 열린다. G

글·배진영 기자

| | | | |
|---|---|---|---|
| **대전** | | | |
| 동춘당문화제 | 대덕구 동춘당 일원 | 10월 1~2일 | 042-608-6572 |
| 효문화뿌리축제 | 중구 뿌리공원 일원 | 10월 7~9일 | 042-589-2205~10 |
| 대전열기구축제 | 엑스포시민광장 | 10월 22~23일 | 042-600-3563 |
| **충청** | | | |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충북 청주시 청주문화산업단지 일원 | 9월 21일~10월 30일 | 043-277-2501 |
| 증평 인삼골축제 | 증평 보강천변 | 10월 7~9일 | 043-835-3977 |
| 우륵문화제 | 충주시 문화회관, 우륵당 등 | 9월 23~27일 | 043-850-6612 |
| 청원생명축제 |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송대공원 일원 | 9월 29일~10월 3일 | 043-251-5932~4 |
| 제천바이오한방박람회 | 제천시 왕암동 제천한방엑스포공원일원 | 10월 1~10일 | 043-641-5093 |
| 온달문화축제 | 단양군 영춘면 온달관광지 일대 | 10월 7~9일 | 043-420-3114 |
| 대한민국와인축제 | 영동군 영동체육관 | 10월 6~9일 | 043-740-3475 |
| 보은대추축제 | 보은군 뱃들공원, 속리산 | 10월 14~23일 | 043-540-3391~4 |
| 생거진천 문화축제 | 백곡천 둔치 등 | 10월 14~16일 | 043-539-3623 |
| 충주사과축제 | 충주체육관 광장 | 10월 22일 | 043-850-9616 |
| 홍성 남당항대하축제 | 충남 홍성군 남당항 일원 | 9월 16~30일 | 041-632-3616 |
|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 보령시 무창포항·해수욕장 | 9월 16일~10월 9일 | 041-936-3510 |
| 홍원항 전어축제 | 서천군 서면 마량리 | 9월 24일~10월 7일 | 041-950-4224 |
| 안면도백사장대하축제 |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 9월 24일~10월 15일 | 010-4810-7792 |
| 천안 흥타령축제 |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 아라리오광장, 천안종합운동장 등 | 9월 28일~10월 3일 | 041-521-2033 |
| 공주알밤축제 | 공주시 공산성 앞 주차장 일대 | 10월 1~8일 | 041-840-2560 |
| 계룡 군문화축제 | 계룡시 계룡대 일대 | 10월 5~9일 | 042-550-1680~1698 |
| 예산 옛이야기축제 | 대흥 의좋은형제공원 | 10월 7~9일 | 041-332-5432 |
| 광천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 | 광천하상 주차장 | 10월 7~9일 | 010-3402-7759 |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맛 좋기로 유명한 전라도 지역에서는 가을을 맞아 먹거리를 테마로 한 축제가 곳곳에서 열린다. 사진은 전라북도 전주시의 '비빔밥축제'.

# '수확의 계절' 남도음식의 절정을 맛본다

## 전주 한국음식관광축제·순창 장류축제·광주 추억의 7080 충장축제 펼쳐

전라도는 예부터 물산이 풍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음식문화를 자랑했다. 특히 수확철인 가을엔 그 풍요로움이 절정에 이른다. 남도의 가을축제는 이 지역의 음식과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맛과 멋,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전주 한국음식관광축제 (10월 20~24일)**

### 한옥마을에서 명품 요리 '먹고 배우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축제가 열린다. 남도의 음식문화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먼저 지난해 한국방문의 해(2010~2012)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며 국내 대표 음식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2011 한국음식관광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한식쿠킹클래스, 한스타일, 한식광장, 한식투어, 막걸리&달인관, 발효식품엑스포의 여섯 마당으로 진행된다.

세대를 이어온 요리명인들의 특급 조리비법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한식쿠킹클래스'에는 '2011 한국음식관광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류스타 윤손하씨와 장나라씨도 등장한다. 한국적 스타일로 한식을 소개하는 '한스타일'은 한식의 역사는 물론 한지, 한복, 국악 등 한국의 유·무형 문화를 만날 수 있다.

'한식광장'은 고추장 만들기부터 떡메치기, 임실치즈 만들기, 청국장 쿠키 만들기 등 전통체험을 통해 한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화와 음식의 집성촌을 방문하는 '한식투어'를 통해서는 한국의 삶과 자연을 더욱 멋스럽게 느낄 수 있다.

건강식으로 세계적 열풍을 느낄 수 있는 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고 만들어 볼 수 있는 '막걸리관'과 이번에 야심차게 선보이는 '달인관'은 TV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길거리 대표 음식 달인 6명이 함께 한다.

**순창 장류축제 (11월 4~6일)**

### '천년의 장맛! 백년의 미소!' 주제로 진행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됐을 정도로 고추장 맛 좋기로 유명한 순창



조선DB

순창의 장류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정도로 성공한 축제다

에서는 '순창장류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지역 특산품인 '장'을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형 축제'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 선정됐다.

11월 4일부터 사흘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천년의 장맛! 백년의 미소!'다. 전통의 장맛으로 백세 장수를 누린다는 의미다. 순창장류축제에는 요리경연대회, 메주 만들기, 고추장 담그기, 세계 고추품종 전시(2백12종) 등 '장'을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전통장류와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다.

광주 추억의 7080 충장축제 (9월 27일~10월 2일)

## 길에서 만나는 그때 그 시절의 춤과 노래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 우수축제'로 지정된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펼쳐진다.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축제는 '7080'을 테마로 한, 말하자면 추억과 향수를 현대적으로 되새기는 축제다. 광주의 중심가인 충장로가 가장 번성했던 1970~1980년대의 문화를 특화한 공연을 중심으로 한 '길거리 종합문화예술축제'를 표방하고 있다.

공연은 대부분 '길바닥'에서 열린다. 첫날 대규모 전국 거리퍼레이드 경연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전당특설무대, 금남로무대, 우체국무대 등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8개 무대에서 아시아문화예술공연, 지역문화 그룹공연, 포크송 페스티벌, 무형문화재 공연 등에 국내외 전문 공연팀이 참여해 공연을 선보인다. 길거리 축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민아티스트, 충장로 거리극, 추억의 댄스, 퍼포먼스아트 등이 일정한 무대 없이 축제장 어디든지 수시로 펼쳐진다.



조선DB

광주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9월 23~25일)

## 메뚜기 등 야생에서 만나는 먹거리… '그땐 그랬지'

완주에서는 독특한 음식문화축제를 접할 수 있다. 9월 23~25일 사흘간 완주군 오토캠핑장과 고산휴양림 일원에서는 '야생'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개최된다. 요즘엔 쉽게 먹기 어려운, 하지만 과거에는 흔히 먹었던 요리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꾸라지, 수벌 애벌레, 민물고기, 메뚜기, 개구리 등의 야생 동식물을 화덕 등 옛날 조리기구를 이용해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다. '향수음식체험'에서는 정통 시골밥상을 맛볼 수 있다. 완주군의 각 마을에서 출품한 마을밥상이 준비된다. 숭어, 붕어, 동자게, 다슬기 등 직접 민물고기를 잡아 보는 행사와 캠핑도 즐길 수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 | | | |
|---|---|---|---|
| **광주** | | | |
| 추억의 7080 충장축제 | 충장로 일원 | 9월 27일~10월 2일 | 062-608-2247 |
| 정율성 축제 | 문화예술회관, 빛고을시민문화관 | 10월 12~16일 | 062-670-7463 |
| 여성합창축제 | 빛고을시민문화관 | 10월 21~23일 | 062-670-7463 |
| 세계김치문화축제 | 북구 중외공원 일원 | 10월 23~27일 | 062-613-3641 |
| **전라** | | | |
| 전주한국음식관광축제 | 전북 전주시 월드컵공원 일원 | 10월 20~24일 | 063-272-6988 |
| 국선생선발대회 | 전주시 전통술박물관 일원 | 11월 12일 | 063-287-6305 |
| 전주비빔밥축제 |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원 | 10월 20~23일 | 063-277-2515 |
| 고창모양성제 | 고창군 고창읍성 일원 | 10월 1~5일 | 063-560-2600 |
| 고창수산물축제 |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 | 10월 29~30일 | 063-560-2131 |
| 김제지평선축제 | 김제시 벽골제 일원 | 9월 29일~10월 3일 | 063-540-3034 |
| 서동축제 |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일원 | 9월 30일~10월 3일 | 063-831-0541 |
| 전국돌문화축제 |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일원 | 10월 28일~11월 3일 | 063-861-6770 |
| 천만송이국화축제 |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일원 | 10월 28일~11월 6일 | 063-859-4331 |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 완주군 오토캠핑장 일원 | 9월 23~25일 | 063-240-4224 |
| 순창장류축제 | 순창군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일원 | 11월 4~6일 | 063-650-1611 |
| 명량대첩축제 | 전남 해남군·진도군 일원 | 9월 30일~10월 2일 | 061-286-5251 |
| 순천만갈대축제 |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일원 | 10월 20~24일 | 061-749-4221 |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 보성군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 10월 8~9일 | 061-850-5203 |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 국제오페라축제에 선보인 국내 창작오페라 '원이엄마'. 한복을 입은 배우들이 한옥 배경의 무대에서 공연중이다.

# 대구 오페라·안동 탈춤 '공연 지방시대'

## 봉화 송이·영주 풍기인삼 축제도 다양한 체험행사로 가을 여행객 유혹

1천3백리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와 경북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가을을 장식한다. 대구에서는 수준 높은 오페라를 볼 수 있고, 경북 안동에서는 신명나는 탈춤 한판이 벌어진다. 송이의 주산지인 경북 봉화에서는 봉화송이를 직접 따볼 수 있고, 경북 영주에서는 과거 임금님께 진상하던 풍기인삼이 가을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9월 28일~10월 29일)

### "창작오페라 등 아시아 공연문화 허브역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구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오페라축제인 대구 국제오페라축제가 펼쳐진다. 대구 국제오페라축제는 2003년 대구 오페라하우스 개관과 함께 시작했다. 이후 대구 국제오페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 지역축제로 평가받는 등 세계적 오페라 축제로 떠올랐다.

오페라란 특수성에도 불구 지난해 2만5천명의 관객이 대구오페라축제를 찾았다. 외국인 관객만 1천5백명이 몰렸다. 올해 축제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대구시는 합작, 초청, 창작오페라를 비롯해 오페라 패션쇼와 부대행사 등을 통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와는 또다른 대구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는 포부다.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의 박은경 홍보마케팅팀장은 "올해는 8개국 14개팀이 16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아시아 오페라축제의 중심지로서 유럽 진출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한국 오페라의 세계화를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9월 30일~10월 9일)

### 15개국 공연팀 참가… 100만 관객 거리에 넘쳐

대구에 오페라가 있다면 안동에는 탈춤이 있다.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찾은 경북 안동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정신문화의 수도'다. 안동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도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안동 하회마을과 탈춤공원에서 국제탈춤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국내외 전통탈춤과 안동민속제, 현장축제, 민속놀이마당 등 약 3백개의 행사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15개국에서 각종 공연팀이 참가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관

광객들은 탈과 가면을 쓰고 음악에 맞춰 덩실덩실 어깨춤도 출 수 있다. 안동축제관광 조직위원회의 김은정씨는 "한국의 미를 간직한 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대표축제로 선정했을 정도"라며 "지난해 무려 1백12만명이 찾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안동의 길거리는 커다란 축제장을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조선DB

지난해 열린 안동국제탈춤축제에 참가한 멕시코 공연단의 탈춤공연.

봉화 송이축제 (9월 30일~10월 3일)

## 맛·향 탁월… 올 작황 좋아 35만명 이상 찾을 듯

먹거리 축제도 있다. 경북 봉화군에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봉화 송이축제가 열린다.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한데 아우르는 봉화는 전국 최대의 송이 주산지로 전국 송이 생산의 15퍼센트를 차지한다. 약 1천9백30헥타르에서 연간 80여 톤의 송이를 생산한다.

춘양목의 산지인 봉화에서 나는 송이는 맛과 향이 탁월하다. 또 태백산 자락의 마사토에서 자라 다른 지역의 송이보다 수분이 적은 대신 향이 짙다.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쫄깃쫄깃해 봉화송이는 세계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는다.

봉화읍 체육공원과 송이산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송이채취체험' '송이볼링체험' '송이파크골프'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도 대거 준비됐다. 김복규 봉화군청 문화관광과장은 "지난해 35만명이 몰려와 지역경제유발효과만 2백53억원에 달했다"며 "올해도 송이 작황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 지난해만큼의 관광객이 봉화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선DB

지난해 송이축제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송이를 들고 있다.

영주 풍기인삼축제 (10월 7~12일)

## 직접 인삼 캐보고 청정 농특산물 맛볼 수 있어

봉화에 송이가 있다면 영주에는 인삼이 있다. 경북 영주에서는 매년 소백산의 정기를 머금고 자란 풍기인삼을 소재로 인삼캐기, 인삼깎기, 인삼요리만들기, 우량인삼 선발대회 등 풍기인삼축제를 열고 있다.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선정된 풍기인삼축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영주시 남원천변에서 열린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풍기인삼축제에서는 참가자들이 가족과 함께 직접 풍기인삼을 캐볼 수 있다. 또 축제기간 중에 풍기인삼아가씨 선발대회도 열려 흥을 한껏 돋운다. 또 축제참가자들은 소백산 자락에서 나는 영주꿀사과, 단산포도, 영주한우 등 청정지역의 농특산물도 직접 맛볼 수 있다.

김주영 영주시장은 "'천년건강, 풍기인삼'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인삼향 그윽한 축제장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인삼캐기체험과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이동훈 기자

| | | | |
|---|---|---|---|
| **대구** | | | |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대구오페라하우스 | 9월 28일~10월 29일 | 053-666-6111 |
| 대구패션주얼리위크 | 중구 일원 | 10월 중 | 053-424-9150 |
| 대구북구문화예술제 | 북구 일원 | 10월 5~9일 | 053-665-3081 |
| 코리아인모션대구 | 시 일원 | 11월 4~6일 | 1644-8415 |
| **경북** | | | |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안동시 일원 | 9월 30일~10월 9일 | 054-840-6590 |
| 안동민속축제 | 안동시 일원 | 9월 30일~10월 9일 | 054-840-6953 |
| 안동서후봉정사 국화대향연 | 안동 봉정사 | 10월 말~11월 초 | 054-853-4181 |
| 안동학가산 산약맛축제 | 안동 학가산 | 10월 말~11월 초 | 054-840-6091 |
| 영주풍기인삼축제 | 영주시 일원 | 10월 7~12일 | 054-635-0020 |
| 영주무섬 외나무다리축제 | 영주시 일원 | 10월 1~2일 | 054-639-6064 |
| 영주부석사 화엄축제 | 영주 부석사 | 10월 중 | 054-639-6064 |
| 영천한약장수축제 | 영천시 일원 | 9월 30일~10월 3일 | 054-330-6880 |
| 영천골벌문화예술제 | 영천시 | 9월 30일~10월 3일 | 054-334-3030 |
| 문경사과축제 | 문경시 일원 | 10월 14~30일 | 054-550-6885 |
| 문경한우축제 | 문경시 일원 | 10월 21~23일 | 054-550-6288 |
| 경산갓바위축제 | 경산시 갓바위 | 10월 28~29일 | 053-810-6092 |
| 청송사과축제 | 청송군 일원 | 10월 29~31일 | 054-870-6227 |
| 청도반시축제 | 청도군 일원 | 10월 22~24일 | 054-370-2371 |
| 예천우리농산물축제 | 예천군 일원 | 10월 14~16일 | 054-654-3801 |
| 봉화송이축제 | 봉화군 송이산 | 9월 30일~10월 3일 | 054-679-6311 |
| 울진금강송송이축제 | 울진군 일원 | 9월 20일~10월 2일 | 054-789-6828 |
| 상주감고을축제 | 상주시 일원 | 10월 12~16일 | 054-533-2001 |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진주 유등 · 부산 자갈치… 대표축제로 '우뚝'

## 합천 고려대장경 · 김해 분청사기축제는 우리 문화재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낙동강이 흐르고 가야와 신라의 유구한 역사가 숨 쉬는 부산 · 경남 지역의 가을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필두로 펼쳐진다. 부산에선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축제인 부산자갈치축제가 열리고, 합천에선 고려대장경을, 김해에선 분청사기를 세계에 알리는 뜻 깊은 축제도 열린다.


진주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

유등이 아름답게 떠 있는 진주 남강의 야경. 올해는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진주남강유등축제 (10월 1~12일)**

### 소망 담은 유등… 환상적 분위기로 감동 전해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에서 유래한 유등놀이는 2000년부터 축제로 확대 개최되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강진청자축제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기념해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주 칠암동 남강 일원에서 열리는 남강유등축제에서는 행사의 내용을 대폭 더할 예정이다.

우선 음악분수대와 진주성을 연결하는 제3부교를 새로 만들어 관람객이 타원형으로 이동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한다. 진주성에는 불빛의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감성조명 전시관'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진주남강유등축제위원회 서영수 예술총감독은 "올해는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보내 준 32개의 상징등을 전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자갈치축제 (10월 12~16일)**

###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옛 시장의 향수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무르익은 가을, 자갈치 시장과 용두산 공원을 떠들썩하게 만들 부산자갈치축제가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려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20회째를 맞는 올해도 용신제와 길놀이 등의 '여는 마당'으로 시

작되는 축제는 '오이소 마당(체험 행사), 보이소 마당(공연·전시 행사), 사이소 마당(먹거리 장터, 경매 행사)' 등 4개의 테마로 펼쳐진다. 특히 자갈치축제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6~14일까지 열려 남포동 일대는 흥분과 낭만으로 가득 찬 축제의 장이 된다.


부산광역시청

해산물과 볼거리가 가득한 자갈치 시장. 근처 PIFF광장에선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려 영화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자갈치축제위원회 신태원 이사장은 "자갈치축제를 통해 중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부산 전체의 내수시장을 부흥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9월 23일~11월 6일)**

## 첨단 기술로 실현한 대장경의 대중화와 세계화


대장경천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축전 D-100일을 맞아 지난 6월 18~20일 서울 인사동에서 '대장경 이운행렬'을 재현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합천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인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이 있다.

이 자랑스러운 문화재의 우수성과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축제에서는 '대장경천년관', '지식문명관' 등 5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대장경천년관에서는 3D 래핑 영상과 홀로큐브 등 최첨단 연출기법을 도입해 대장경의 웅장함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지식문명관은 21세기 디지털 문명시대에 대장경의 의미를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를 통해 전달한다. 이밖에 정신문화관과 세계교류관도 놓치면 아쉬운 볼거리다.

**김해분청사기축제 (10월 18~23일)**

## '분청사기의 고장' 알릴 90여개 프로그램 진행

분청사기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서민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도자기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 최대의 분청사기 도예촌인 김해 송정리 일원에서는 오는 10월 18~23일 동안 김해분청사기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2년 연속 유망축제 선정을 기념해 분청도자역사관, 분청다기와 장군차 등 8개 분야 90여 개 프로그램을 보강했다. 축제에서는 직접 흙을 반죽해 도자기를 빚고 그 위에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한 도자기 경매에도 참여해 볼 수 있다.

김해도예협회 조규진 이사장은 "기일제 및 한일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한일 도자 문화교류의 시발점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G

글·손수원 기자

| | | | |
|---|---|---|---|
| **부산** | | | |
| 부산국제영화제 | 남포동 PIFF광장, 해운대 일원 | 10월 6~14일 | 02-3675-5097 |
| 부산세계불꽃축제 | 광안리해수욕장 | 10월 21~29일 | 051-501-6051 |
| 40계단 문화축제 | 중구 동광동 40계단 앞 | 10월 7일 | 051-600-4041 |
| 동래읍성역사축제 | 동래읍성 북문광장, 동래문화회관 일원 | 10월 7~9일 | 051-550-4851 |
| 부산고등어축제 | 송도해수욕장 | 10월 28~30일 | 051-240-4065 |
| **경남** | | | |
| 함양물레방아골 축제 | 함양군 남계서원 일원 | 9월 23~25일 | 055-960-5161 |
| 비사벌문화제 | 창녕군 창녕읍 일원 | 10월 7~9일 | 055-533-3777 |
| 창원가고파국화축제 | 마산항 제1부두 | 10월 28일 ~11월 6일 | 055-225-2341 |
| 사천삼천포항 수산물축제 | 사천 삼천포항 일원 | 10월 7~9일 | 055-833-2747 |
| 남명선비문화축제 | 산청군 시천면 남명기념관 일원 | 10월 8~9일 | 055-970-6401 |
| 남해 독일마을 옥토버페스트 | 남해군 독일마을 일원 | 10월 1~2일 | 1588-3415 |
| 거제섬꽃축제 | 거제면 서정리 거제농업개발원 일원 | 10월 28일 ~11월 7일 | 055-639-3980 |
| 진해예술제 | 진해 시민회관, 진해루 특설무대 외 | 10월 21~30일 | 055-546-4017 |
| 소가야문화제 | 고성군 종합운동장 | 9월 29일 ~10월 1일 | 055-536-6277 |
|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 창녕군 부곡온천관광특구, 전국 온천지 일원 | 9월 28일 ~10월 2일 | 055-670-2203 |
| 하동녹차 참숭어축제 | 하동군 금남면 신노량 일원 | 11월 12~14일 | 055-883-9710 |
| 창원페스티벌 | 창원광장, 용지문화공원 외 | 10월 22~23일 | 055-225-2347 |
| 양산삽량문화축전 | 양산천 둔치 일원 | 9월 30일 ~10월 3일 | 055-392-2547 |
| 창원북면온천축제 | 북면 온천 일원 | 10월 1일 | 055-212-2214 |
| 사천항공 우주엑스포 | 사천시 사천비행장 | 9월 22~25일 | 055-831-2061 |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4대강의 귀환… 새로운 '강'문화 첫발

##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강' 주제로 4대강 5곳서 순차적으로 열려

청명한 하늘빛을 가득 머금은 4대강에도 가을이 드리워졌다. 올 연말이면 4대강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16개 보가 완공된다. 4대강이 생명력을 되찾고 우리 곁에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2011 강가의 가을축제'가 열린다. 4대강을 사람과 강이 함께하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일러스트 : 이철원

지난 여름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를 이겨낸 4대강.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푸른 물과 초록강변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장한 4대강의 귀환을 축하하는 '2011 강가의 가을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4대강 5곳에서 열린다.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강'이란 주제로 강가의 가을축제가 열리는 곳은 ▲경기도 여주군(한강) ▲경북 안동시(낙동강) ▲부산시 북구(낙동강) ▲충남 부여군(금강) ▲전남 나주시(영산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을 기념해 올해 처음 4대강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강가의 가을축제는 9월 30일 개막하는 부산시 북구의 '낙동강 문화 대축제'와 충남 부여군의 '금강의 가을축제'로 그 시작을 알린다.

이어 10월 1일 경기도 여주군에서 '남한강 가을축제'가, 10월 4일 경북 안동시에서 '낙동강 강가의 가을 문화 축제'가 막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10월 27일 시작되는 전남 나주시의 '영산강 문화축제'가 강가의 가을축제 대미를 장식한다.

강가의 가을축제는 강과 사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강 문화 창조가 핵심이다.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시와 행사,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좀더 많은 이들이 새로운 강 문화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공연단체와 동아리들도 행사 주체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김수한 사무관은 "강가에서 펼쳐지는 한바탕 즐겁고 신나는 문화·관광 축제를 통해 4대강살리기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을 찾고, 지역축제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산업군으로 4대강살리기 효과를 파급하는 방안 등도 더불어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의 '남한강 가을축제'

## 왕에게 진상품을 바치던 '여주목의 영광' 재현


조선DB

국립무용단의 〈코리아 환타지〉.

4대강살리기가 시작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 경기도 여주군이다. 여주군에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여주읍 현암리 남한강변 일원에서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가 펼쳐진다.

푸른 하늘을 화려한 빛깔로 수놓는 모터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으로 시작되는 개막식은 10월 1일 오후 3시부터 현암지구에서 열린다. 여주목사 진상 행렬과 국왕에게 진상품을 바치는 진상의식 재현 등이 식전 행사로 마련되며, 개막선언에 이어 다채로운 축하공연, 화려한 불꽃놀이가 선보인다.

조선시대에 남한강 수운(水運)의 중심지였던 여주를 잠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듯한 여주목사 진상 행렬은 수로를 따라 번창했던 여주목의 옛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또 10월 5일에는 〈KBS열린음악회〉가 남한강변에서 열려 청정 여주의 가을을 음악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예술단의 〈바람의 나라〉 공연, 국립무용단의 〈코리아 환타지〉 등 문화예술공연, 세종대왕마라톤대회와 여강길 걷기대회 등 문화체험이벤트 등이 아름다운 남한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와 레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이와 더불어 기존의 지역축제가 함께 개최돼 올가을 여주에서는 '6대 축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들 6대 축제는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 이외에 ▲여주도자기축제(9월 24일~10월 23일) ▲진상명품축제(10월 1~4일) ▲세종대왕 마라톤대회(10월 3일) ▲세종문화큰잔치(10월 9일) ▲군민의 날 행사(10월 10일) 등이다.

문의 · 여주군청 ☎031-887-2831

안동의 '낙동강 강가의 가을 문화 축제'

## 수상 자전거·창작무용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조선DB

안동의 전통음식제전.

산골짜기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이 빚은 절경과 선인들이 남긴 전통의 고장이 안동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첫삽을 뜬 곳이기도 한 안동에서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경북 안동시 정하동의 낙동강 둔치에서 '낙동강 강가의 가을 문화 축제'가 열린다.

'낙동강 강가의 가을 문화 축제'는 인근 탈춤공원에서 열리는 안동의 대표적인 지역축제 '국제탈춤 페스티벌(9월 30일~10월 9일)' 기간 중 개최돼 두 가지 축제를 모두 즐길 수도 있다.

10월 4일 정하동 낙동강 둔치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강과 사람의 어울림을 주제로 한 무언(無言)의 크로스오버 퍼포먼스인 '강고유제'가 식전 행사로 열리며, 공식행사를 마친 뒤에는 화려한 불꽃아트 쇼도 펼쳐진다.

### ❯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

| 축제명 | 내용 | 기간·장소 |
|---|---|---|
| 개막행사 | · 식전행사<br>(모터페로 축하비행,여주 목사 진상 행렬 및 진상 의식체험)<br>· 불꽃아트 & 놀이 | 10월 1일<br>여주군 현암지구 |
| 문화예술공연 | · 국립무용단 '코리아환타지'<br>· 여주농악 대향연<br>· 도립무용단 '태권무무 달하'<br>· 국립국악원 '강과 자연'공연 | 10월 1~10일<br>여주군 현암지구 일원 |
| 특별공연 | · 국악과 뮤지컬의 만남<br>· 국립합창단 공연<br>· 'KBS열린음악회' | |
| 문화체험이벤트 | · 세종대왕마라톤대회<br>· 전국수상스키대회<br>· 남한강 자전거 대행진<br>· 여강길 걷기대회<br>· 황포돛배승선체험 등 | |

### ❯ 안동 '낙동강 강가의 가을 문화 축제'

| 축제명 | 내용 | 기간·장소 |
|---|---|---|
| 공식행사 | · 식전행사 : 강 고유제 등<br>· 불꽃아트 쇼 | 10월 4일<br>안동시 낙동강변 |
| 문화예술공연 | · KBS국악단 초청공연<br>· 서울무용단 창작무용극 '백조의 호수'<br>· 물과 생명 퍼포먼스<br>· 정열의 락과 댄스 페스티벌<br>· '블랙박스'공연 등 | 10월 4~8일<br>안동시 낙동강변 일원 |
| 생활의 강 행사 | · 강변레포츠 한마당<br>· 수상자전거 타기 등 | |
| 문화체험이벤트 | · 불꽃 조명전시회 '강과 산, 그리고 빛'<br>· 낙동강 역사 사진전<br>· 한지등으로 보는 낙동강의 역사<br>· 누치잡이<br>· 탈놀이댄스경연대회<br>· 낙동강 '라디엔티어링' | |

### ❯ 부산 '낙동강 문화 대축제'

| 축제명 | 내용 | 기간·장소 |
|---|---|---|
| 개막행사 | · 축하공연<br>· 불꽃놀이 | 9월 30일<br>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
| 폐막행사 | · 폐막행사<br>· 초청 공연 '퓨전 난타 퍼포먼스'<br>· 불꽃놀이 | 10월 3일<br>화명생태공원 |
| 문화예술공연 | · 국립 국악관현악단 공연<br>· 1300리 낙동강 가요제<br>· 낙동강 유역 전통예술공연<br>(대구비산날뫼북춤 등)<br>· 낙동 민속예술제 등 | 9월 30일~10월 3일<br>화명지구와 낙동강변 일원 |
| 전시행사 | · 낙동강 문예전<br>(갈대숲 시화전,미술 야외전시)<br>· 대형 오브제 전시-거북등 달기 등<br>· 낙동강 유역 문화탐방 투어<br>(낙동강 스탬프 찍기) | |
| 문화체험행사 | · 낙동강 역사 탐방 대장정<br>· 댄스 힙합 경연대회 등<br>· 국제 누들 페스티벌<br>· 추억의 구포장터와 돌아온 황포돛배 등 | |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행사장 앞 낙동강변에 2인승 수상자전거 1백 대가 비치돼 낙동강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직접 누려 볼 수도 있다. 이어 8일까지 서울시무용단의 창작무용극 〈백조의 호수〉와 정열의 록과 댄스 페스티벌 등 문화공연, 불꽃조명전시회와 사군자그리기 대회 등 문화체험 행사들이 전통과 현대의 문화를 동시에 맛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문의·안동시청 ☎054-840-5220

부산 북구의 '낙동강 문화 대축제'

## 화명생태공원서 전통과 현대 문화 한데 어울려

조선DB



대구 비산날뫼북춤.

4대강살리기의 첫 준공지역이 부산시 북구 화명지구다. 화명지구는 4대강살리기를 통해 비닐하우스가 즐비하던 상습침수 지역에서 시민들의 휴식과 레저, 스포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를 축하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화명생태공원과 인근 낙동강 일대에서 '낙동강 문화 대축제'가 열린다.

낙동강 유역의 문화·역사·전통이 어우러진 강 문화 축제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 '낙동강 문화 대축제'는 주로 저녁 시간대에 강가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문화 공연과 행사가 열린다.

개막식은 9월 30일 오후 7시 화명생태공원에서 시작되며, 식전행사로 '골드 어르신 한마당'이, 개막 선언 다음에는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낙동강 문화 대축제'의 문화예술 공연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유진박과 낙동강 비상(飛上)콘서트다. 갈대숲 시화전, 거북등 달기와 같은 전시·행사도 마련되며 전통연만들기와 갈대조형물 만들기, 국제 누들 페스티벌, 추억의 구포장터와 황포돛배 등이 사람과 문화가 넘나드는 낙동강 유역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체험행사다.

문의·부산시 북구청 ☎051-888-3474

부여의 '금강의 가을축제'

## 구드래 둔치서 펼치는 강과 예술의 화려한 만남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준공을 축하하는 '금강의 가을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충남 부여군 구교리 금강변 구드래(금강 나루터)에서 열린다.

'충청의 젖줄, 새로운 역사를 꿈꾼다'란 주제로 열리는 '금강의 가을축제' 개막식은 9월 30일 오후 8시부터 구드래 둔치 특설무대

에서 열린다. 식전행사로는 곡마단의 역사재현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공식행사를 마친 뒤에는 10분간의 불꽃대축제가 열려 밤하늘을 수놓는다.


조선DB
부여의 구드래돌쌈밥.

구드래 일원에는 백제문화와 계백장군에 얽힌 설화를 이용한 수변체험 미니마을이 조성된다. '금강의 가을축제'가 열리는 구드래 일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백제문화제(10월 1~10일)가 연계 진행돼 두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10월 7일 저녁 8시부터 구드래 둔치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폐막 공연 '금강 판타지'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에 어우러지는 레이저와 불꽃 공연이 강과 예술의 만남을 화려하게 풀어놓는다.

이 밖에도 창작공연극 〈얼굴〉 등 문화공연과 설치미술전 〈백마강〉, 백제문양전 〈화이불치 검이불루〉 등 문화체험 이벤트들이 축제를 찾는 이들을 반기게 된다. 문의·부여군청 ☎041-830-2922

나주의 '영산강 문화축제'

## 나주목사 행차 재현·고려선 취항식 등 화려


조선DB
영산강 황포돛배.

구성진 남도의 가락처럼 영산강 평야를 따라 유유자적 흐르는 영산강의 귀환을 축하하는 '영산강 문화축제'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남 나주시 영강동 영산강 둔치공원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강가의 가을축제 가운데 가장 늦게 열리는 영산강 문화축제는 나주에서 열리는 '2011 대한민국농업박람회(10월 21~30일)', 영암에서 열리는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10월 14~16일)' 등과 연계해 개최됨으로써 여러 볼거리를 단숨에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개막식은 10월 27일 오후 7시 영산강 둔치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영산강의 희망과 미래의 꿈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담은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눈길을 사로잡게 된다.

국립국악원의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등 '남도스러운' 종합공연과 서울예술단의 판타지 가무극 〈바람의 나라〉, 창작뮤지컬 〈스페셜 레터〉 등 문화예술공연이 축제 기간 중 선보이며, 나주목사 행차 재연행사도 강가의 가을축제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게 된다.

'영산강 문화축제' 중 가장 인상적인 행사가 고려선 왕건호 취항식과 기념운항이다. 영산강에서 발굴된 고려선 유물을 재현한 왕건호는 외형은 고려선을 본따고, 내부는 동력을 달아 현대적인 선박으로 만들어졌다.

축제 개막식날 나주영상테마파크를 출발해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통선문이 나 있는 죽전보를 통과, 승천보 아래까지 기념운항을 하게 된다. G 문의·나주시청 ☎061-330-8805

글·박경아 기자

### 부여 '금강의 가을축제'

| 축제명 | 내용 | 기간·장소 |
|---|---|---|
| 개막행사 | ·식전과 공식행사<br>·축하공연<br>·불꽃축제 | 9월 30일<br>부여읍 구교리 금강변<br>구드래 |
| 폐막행사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br>·레이저, 불꽃쇼 | 10월 7일<br>구드래 일원 |
| 문화예술공연 | ·충남국악단 특별공연<br>·국립합창단 공연 | 9월 30일~10월 9일<br>구드래 일원 |
| 전시행사 | ·창작 공연극 '얼굴'<br>·낙화암 이야기 '꽃잎' | |
| 문화체험행사 | ·백제문화예술 체험<br>·웰빙 건강체험<br>·왕흥사지 옛다리<br>·설치미술전 '백마강'<br>·백제문양전 '화이불치 검이불루'<br>·먹을거리 장터 등 | |

###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 축제명 | 내용 | 기간·장소 |
|---|---|---|
| 개막행사 | ·식전행사<br>길거리 퍼레이드<br>·공식행사<br>·멀티미디어 불꽃쇼 | 10월 27일<br>나주 영산강 둔치공원 |
| 문화예술공연 | ·국립국악원 '남도굿거리'<br>·서울예술단 '바람의 나라'<br>·'영산강 가요제'<br>·10월의 마지막 밤 '시민 음악회'<br>·창작뮤지컬 '스페셜 레터' | 10월 27~31일<br>나주 영산강 둔치공원 |
| 기획행사<br>특별프로그램 | ·영산강살리기사업 준공 기념식<br>·고려선 왕건호 취항식 및 기념 운항<br>·나주 동서부 줄다리기 재현<br>·나주목사 행차 재현행사<br>·청소년 페스티벌 | |
| 문화체험<br>프로그램 | ·금성산~영산강 100km 릴레이<br>자전거 대회<br>·남도음식관 운영<br>·영산강변 마라톤대회<br>·시민 강변도로 걷기 대행진<br>·영산강 물 자전거 체험<br>·영산강 사진전 등 | |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맥주축제로 손꼽히는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에 몰려든 관광객이 맥주잔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 독일 옥토버페스트·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스페인 라토마티나

# 수백만 관광객 몰려… 지역경제 '성장엔진'

지역축제는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엔진이다. 세계 각국의 유명 지역축제에는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막대한 돈을 뿌리고 가는 것은 물론이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나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지역축제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지역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 옥토버페스트

### 세계 최고 맥주축제… 연 6백40만명 뮌헨 찾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는 세계 최고의 맥주축제다. 옥토버페스트는 1810년 바이에른 공국의 초대왕인 루드비히 1세의 결혼식을 맞이해 5일간 공연을 연 데서 비롯됐다. 이후 뮌헨에 있는 맥주회사들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옥토버페스트는 세계적인 맥주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옥토버페스트 기간 중에는 뮌헨광장을 중심으로 3천명 이상이 다같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대형천막이 설치된다. 지난해에는 옥토버페스트 탄생 2백주년을 맞아 무려 6백40만명의 관광객이 뮌헨을 찾았다. 이들이 마신 맥주만 모두 6백만~7백만 리터에 달했다. 올해 옥토버페스트는 9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다.

스페인 라토마티나

### 토마토 던지며 놀기… '가장 뜨는 축제' 꼽혀

매년 8월 말 스페인의 소도시 부놀은 붉은 토마토빛으로 물든다. 8월 말 열리는 라토마티나 축제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부놀로 모여든다. 축제가 시작되면 대포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1백 톤이 넘는 토마토를 길거리에 쏟아붓는다.

라토마티나는 1944년 토마토 가격이 폭락하자 성난 농부들이

토마토를 시의원에게 던진 데서 비롯됐다. 지금은 정치적 의미는 사라지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대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5만명의 사람들이 부뇰을 찾았다.

중국 칭다오 국제맥주축제

## ‘동양의 옥토버페스트’ 3백만 인파 몰려와

칭다오에서는 매년 여름 세계적인 맥주축제가 열린다. ‘동양의 옥토버페스트’로 불리는 칭다오 국제맥주축제다.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보름간 열린 올해 칭다오 국제맥주축제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기간 중 중국 대륙과 세계 각지에서 3백만명의 인파가 칭다오로 몰려왔다.

칭다오 맥주축제장에서는 칭다오맥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맥주를 맛볼 수 있다. 맥주에 걸맞은 각양각색의 안주도 별미다. 특히 올해 칭다오 국제맥주축제에서는 서울시가 홍보관을 별도로 꾸려 주당들과 칭다오 교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본 아오모리 네부타축제

## 초대형 등불축제… 관광객 3백50만명 즐겨

일본 혼슈 최북단의 아오모리(青森)에서는 매년 8월이면 네부타축제가 열린다. 일본의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네부타축제는 일본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3백5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네부타축제를 즐기기 위해 아오모리를 찾았다. 아오모리 주민들은 네부타축제 때 선보일 초대형 등불을 제작하는 데 1년간 공을 들인다. 축제가 시작되면 아오모리 시민들은 초대형 등불을 이끌고 거리로 쏟아진다. ‘네부타’로 불리는 등불 20여 개가 행렬을 이뤄 아오모리 시내를 천천히 돈다. 축제 참가자들은 “랏세라, 랏세라, 랏세랏세, 랏세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등불을 같이 민다. 단결과 협동심을 다지는 ‘랏세라’ 구호와 북소리가 아오모리의 여름밤을 달군다.



이동훈 기자

일본 아오모리 네부타축제에 사용된 초대형 등롱.

일본 삿포로 눈축제

## 시내 곳곳 눈과 얼음조각… 세계 3대 축제로

매년 2월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札幌)에서는 눈축제가 열린다. 삿포로 눈축제는 브라질의 리우 삼바축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와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힌다. 1950년 패전으로 침울해 있던 삿포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축제를 고안해냈다.

삿포로 시내 오도리공원과 마코마나이 일대에 전시되는 눈과 얼음조각은 눈축제의 백미다. 일주일간의 눈축제에 동원되는 눈의 양은 대략 5톤트럭 7천 대 분량에 달한다. 지난해만 2백만명 이상이 눈축제 기간중 삿포로를 찾았다. 다음 삿포로 눈축제는 오는 2012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중국 하얼빈 빙설제

## 매년 초 한달간 ‘눈과 얼음의 나라’로 변신



신화 뉴시스

세계 3대 겨울축제로 불리는 중국 하얼빈의 빙설제.

중국 하얼빈(哈爾濱)은 한겨울이면 수은주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기 일쑤다. 하얼빈에서는 이같은 추위를 이용해 매년 겨울 하얼빈 빙설제를 연다. 매년 1월 5일부터 한달간 하얼빈 시내의 자오린공원과 타이양도공원은 눈과 얼음의 나라로 변신한다. 1천5백 점이 넘는 눈과 얼음 작품이 하얼빈 시내를 수놓는다. 지난해 2백만명 이상이 축제기간 중 하얼빈을 찾았다. 하얼빈 빙설제는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의 겨울카니발과 함께 세계 3대 겨울축제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 2천5백편의 공연… 관광객 1백만명 무료 관람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세계 최대의 공연축제’다. 매년 8월 에든버러의 에든버러성과 로열마일 일대는 세계 각지에서 축제를 보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시작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유럽인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페스티벌을 연 목적이었다. 전 세계에서 온 무명작가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료 공연을 펼친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온 관광객도 1백만명이 넘는다. 특히 스코틀랜드 전통의상을 입고 백파이프를 든 군악대의 연주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백미다. G



연합

길거리 공연 의상을 입고 있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 참가자.

글·이동훈 기자


조선DB

스페인의 작은 도시 부뇰에서 열리는 토마토축제. 이 축제는 콘텐츠와 운영 노하우 측면에서 우리 축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손꼽힌다.

# “명품 축제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 관광객이 불편을 각오하고 찾아오는 스페인 토마토축제를 배워라

조석으로 찬기운이 드는 것이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모양이다. 단풍놀이하듯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며 축제를 즐길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이 설렌다. 그 전에 ‘부실행정의 상징’이란 오명을 갖게 된 몇몇 우리 지역축제들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해 볼까 한다. 아프지만, 뼈아프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축제들의 현주소다.

먼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축제들이 많다. 축제기원의 당위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벤트성 축제가 많다는 뜻이다. ‘축제’는 서민들의 삶 속의 즐겁고 유쾌한 단상이 일시적으로 ‘축제’란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 당연히 축제의 소재와 주인공은 서민들의 삶 속에 ‘숨은 그림찾기’ 처럼 숨어 있을 터다.

하지만 우리의 지역축제는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든 ‘희로애락’을 고찰하기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억지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많다. 부실하고 흥미도 떨어지는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애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축제시기도 정책적 필요 시점에 맞춰 열리기 때문이다.

아시아를 수차례 방문했던 독일의 한 축제전문가는 이런 한국의 상황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동네축제가 발달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의 축제는 매우 정치적이다”고 말했다.

### 급조된 부실축제에 예술가는 뒷전

이런 난항 속에 우수한 한국의 지역축제들이 덩달아 폄하되는 현상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한국의 축제에는 예술가가 없다. 관공서 위주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관공서와 축제사업을 수주한 홍보광

고업체가 주도하고 몇몇 예술가가 차후에 고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문화축제에 문화예술인이 뒷전이니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축제는 콘텐츠와 지역성을 '예술'이란 촘촘한 그물로 엮어야 한다. 이런 끊임없는 작업을 통해 탄탄한 문화축제로서의 골격을 갖추고 유럽의 성공한 축제들처럼 장기적 생명력을 갖출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관공서의 공무원이 1차 기획을 하고,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그럴싸하게 살을 붙인다. 그 다음 어느 예술가를 고용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식이다. 해외 축제들에 비해 한국 축제가 전반적으로 예술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의욕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의 축제 또는 대형문화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점이 숨어 있다. 바로 입찰자격제한이다. 예컨대, '3년 이내 단일수주 30억 이상, 혹은 10억 이상 수주했던 경험 있는 업체' 같은 자격제한은 대형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벽이다.

### 관광 시각으로만 평가하면 개성 사라져

결국 대다수 한국 예술가들은 참여자격이 없으니 국가적 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 경험이 없으니 앞으로도 참여자격이 없는 구조다. 업체들끼리도 자격이 되는 업체와 안 되는 업체끼리 종속관계가 지속된다. 물론 최근 들어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입찰자격요건을 정하는 단계부터 대형업체들이 이미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축제를 관광학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의 축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부실축제가 난립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축제의 본질보다 상품으로서의 요건을 중요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우수축제를 뽑는 평가기준이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지자체의 우수축제 선발기준 혹은 만족도 평가항목을 보면 콘텐츠에 대한 분석보다는 편의시설·접근성·먹거리·숙박시설·홍보상태, 심지어 화장실 수까지 평가에 엄격히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축제의 본질은 콘텐츠와 지역성의 조화, 주제에 충실한 효과적인 프로그래밍과 재미, 예술성이다. 축제의 근간이 되는 요소보다 관광상품으로서의 요건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현재 한국 축제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는 한국의 축제문화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축제의 방향성을 정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지역축제들이 이에 따라 맞춰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축제가 부실한지 튼실한지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의 지역축제들이 점점 비슷비슷해지는 현상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스페인의 부뇰(Bunol)이란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토마토축제의 운영 노하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축제가 열리는 부뇰은 인구수가 채 1만명도 안 된다. 당연히 숙박시설과 교통, 편의시설들이 충분할 리 없다. 하지만 토마토축제를 전후한 며칠 동안 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때문에 축제운영위원회는 관람객을 인근 도시로 분산시켜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웃 도시들과 나누고 협업하는 탄탄한 관광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과다. 특별한 관광콘텐츠가 없는 주변도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축제의 근간인 콘텐츠의 재미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은 더욱 돋보인다. 예를 들면 식량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해 상품가치가 떨어진 토마토만 사용하거나 안전한 축제를 위해 토마토를 던지기 전에 반드시 손으로 으깨서 던져야 하는 독특한 게임 규칙, 샤워시설이 따로 없으니 게임 후 살수차가 지날 때 스스로 충분히 씻는 것, 숙박시설 분산을 위해 인근 도시로 가는 교통방법과 소요시간 등의 적극적 사전안내 등이다.

### 官 위주 축제행정도 전문가와 재검토 필요

매년 이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은 축제의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오는 셈이다. 결국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관광여건이 편리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축제의 경쟁력은 오로지 '콘텐츠'에 달렸다는 말이다.

또 관공서 위주의 축제행정이 야기하는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축제로 알려진 에든버러 축제와 아비뇽 축제는 양질의 콘텐츠를 모으는 시스템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축제형태 정비, 그리고 축제의 질서와 예산확보,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관공서 등 세가지 요소가 절묘히 맞아떨어진 결과다.



단순한 수박겉핥기식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과 기능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최근 K팝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것처럼 이번 가을축제에 한국문화가 응축된 '축제'로 한국을 기억시키는 성공사례를 남겨 보는 건 어떨까. G

글·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 대구세계육상은 2014·2018의 '밑거름'

## 역대 최다 45만명 입장 등 흥행대박… 숙박·볼거리 더 신경써야

지난 8월 27일부터 9일간 대구스타디움을 달궜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총 44만6천3백5명이 입장해 2009 베를린대회(39만7천명)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 흥행규모를 자랑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생산 유발 5조5천8백76억원, 고용 유발 6만2천8백41명, 부가가치 유발 2조3천4백6억원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대회가 향후 개최될 주요 국제대회에 주는 교훈과 과제는 무엇일까?



조선DB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9일간 총 44만6천여 명의 관객이 입장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대회로 치러졌다. 사진은 지난 9월 4일 벌어진 폐막식 장면.

1986 서울아시안게임→1988 서울올림픽→2002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월드컵→2002 부산아시안게임→2010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한민국이 지난 25년 동안 개최한 주요 국제스포츠대회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 인천아시안게임→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스포츠대회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때론 무분별하게 국제대회를 유치한 뒤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는 바람에 결국 국고만 축냈다는 비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국제대회는 별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과

### 입장권 판매 1백 퍼센트… 생산 유발효과만 5조

대회 운영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이번 대회는 전체적으로 성공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총알 탄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류샹(중국),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 등 지구촌 최고 육상스타들이 대거 출전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

러일으켰다. 대한민국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인 대구를 지구촌 곳곳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관계자들은 대회 운영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폴 하디 경기국장은 "대회 규모가 크고 관중도 많기 때문에 어느 대회, 어느 도시든 숙소와 수송의 불편, 출입통제 같은 문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오전에는 어린 학생들이 와서 경기장이 신나고 젊고 활기차서 좋고, 오후에는 어른들이 많이 와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는 등 관람 모습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대회조직위원회 측은 입장권 판매율 1백 퍼센트(46만4천6백88석)를 달성했으며, 총 44만6천3백5명이 입장해 91.66퍼센트의 입장률을 보여, 관중 동원에서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2007년 일본 오사카대회(입장률 49.06퍼센트, 입장객 수 25만4천명), 2009년 독일 베를린대회(70.3퍼센트, 39만7천명) 때보다 나았다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 투입된 예산은 3천5백95억원(대회운영 1천7백81억원, 대회시설 1천8백14억원)이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생산 유발 5조5천8백76억원, 고용 유발 6만2천8백41명, 부가가치 유발 2조3천4백6억원 등 천문학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회를 위해 3천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지만, 흑자를 본 대회나 마찬가지라는 게 대회조직위 쪽의 분석이다.

### 이런 점은 고쳐야

## 외국 미디어 찬밥… 교통·숙박 다소 미흡

경기 외적인 대회 운영 면에서는 미흡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선수촌이 건립돼 무료로 숙식이 제공되면서 선수단의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외국 미디어들의 교통 및 숙박, 먹거리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독일 공영방송 '아에르데(ARD)'와 '체트데에페(ZDF)' 관계자 90여 명은 경주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며 왕복 3시간을 차 안에서 허비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에 호텔이 모자라 경주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이다.

각 나라 취재진을 수송하는 미디어 셔틀버스는 통역 자원봉사자 없이 운행됐다. 대개 관광버스를 전세내 운영하는데, 운전기사들이 외국인의 질문에 진땀을 흘리는 광경이 자주 목격됐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단일종목대회인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달리 종합대회인 만큼 대회 준비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조선DB

평창은 성공적인 2018 동계올림픽을 위해 경기 외적인 숙박·교통·볼거리 등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은 알펜시아 내 콘도지구 모습.

### 향후 국제대회의 과제

## 경기 외적인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로 만족도 높여야

어느 국제대회든 단순히 선수들의 경기력, 경기장 시설, 대회 운영 등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그곳이 자랑하는 먹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선수단과 각국 응원단, 미디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취재진들은 "대구에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숙박의 경우 번듯한 호텔보다는 모텔들이 많아 해외 취재진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볼거리의 발굴도 과제다.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때 화려한 개막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도시 곳곳이 볼거리로 넘쳐났다. 경기장 주변의 밤을 화려하게 밝힌 휘황찬란한 고층빌딩들은 시민들은 물론, 각국 선수단과 취재진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광저우의 뒤를 이어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인천으로서는 곱씹어봐야 할 것 같다.

중국은 2008 베이징올림픽 개최 당시에도 기상천외하고 볼 만한 경기장 시설로 지구촌을 사로잡았다. 올림픽 주경기장은 새 둥지 모양으로 만들었고, 수영 경기가 열린 '워터큐브'도 '명물'로 선수단과 취재진, 그리고 중국 관중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비즈니스나 관광을 위해 외국에 나갔을 때 중요한 것은 볼거리와 먹거리다.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선수단과 미디어에게도 마찬가지다. 경기 자체나 대회 운영 외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감동을 받고 자국에 돌아가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각각 아시안게임과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인천과 평창이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G

글 · 김경무 (한겨레신문 스포츠 선임기자)

# 원더풀~ 한국원자력 안전교육 시스템!

## 대전 KINS로 외국 연수생 밀물… 내달 미국에서도 2명 올 예정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다. 한반도와 주변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KINS는 원자력 안전규제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후발국들의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62번지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국제원자력학교에서는 특별한 입학식이 열렸다. 제3기 '국제원자력안전석사과정' 입학식이다. 이날 입학한 '학생'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온 8명.

말이 '학생'이지 이들은 모두 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술 전문가들이다. 자국보다 앞선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 기술을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1년 6개월간의 석사과정을 택한 것이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달라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원자력 안전규제기술 분야에서도 통하는 말이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의 우수성은 30년 이상의 성공적 원전 운영사례를 통해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상태.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운영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호기당 고장정지' 건수는 연간 1건 미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지난해 외국인 6명 1년 6개월 과정 석사 첫 배출

KINS는 국제사회에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약을 체결, 2008년 1월 세계 최초의 국제원자력학교를 개설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데 이어 카이스트와 공동 석사과정을 개설, 2009년 8월부터 역시 세계 최초로 1년 6개월 과정의 국제원자력안전석사과정 입학생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난 8월 1~12일 대전 유성구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국제원자력학교에서 교육받은 요르단 원자력규제위원회(JNRC) 연구원들. 이들은 요르단 교육생 중 일부로, 요르단이 개방적인 중동국가여서 전체 교육생 10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제1기 입학생은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에서 온 6명, 2010년 9월 입학한 제2기 입학생은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요르단 출신의 12명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첫 학위자가 배출되어 입학생 6명 전원이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KINS의 이석호 기획부장은 "단기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본국에서 스스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석사학위 과정이 필요했다"며 "특히 KINS와 카이스트는 인접하고 있어 인력 양성의 최적 조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INS는 카이스트와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유성구 과학로에 위치해 있다.

### 연 2천5백여 명 교육… 외국인이 10퍼센트

국제원자력학교에서는 연간 2천5백여 명의 원자력 안전 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다. 교육생 중 약 10퍼센트가 외국인. 최근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의 교육생도 국제원자력학교에서 만날 수 있다.

KINS는 원자력 선진국 12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정보교환, 중장기 안전현안 공동연구 그리고 규제요원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신규원자로국(NRO) 직원 2명이 각각 6개월간 연수를 하러 올 예정이다.

KINS의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UAE에 대한 원전 수출(2009년), 요르단에 대한 연구용 원전 수출(2010년)에도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2009년 12월 UAE에 원전을 수출할 당시 KINS 직원들이 UAE를 방문해 UAE의 원전 안전요원들을 교육했다. 지난 8월에는 요르단 원자력규제위원회(JNRC)에서 파견한 10명의 연구원들이 약 2주간 요르단에 설치될 연구용 원자로 관련 교육을 받기도 했다.

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JNRC의 샤타 카키시 박사(30·여)는 "요르단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한국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일대일로 진행되는 도제식 교육이 아주 흥미롭고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원자력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카키시 박사는 "귀국 후에도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KINS와 교류를 계속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요르단에서도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산유국인 요르단으로선 원전 도입이 절실해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해 IAEA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면서 원전운영 경험을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지난 9월 6일 열린 국제원자력학교 제3기 국제원자력안전 석사과정 입학식. 입학생들과 이들의 한국생활 멘토들이다.

KINS의 윤철호 원장은 "KINS는 원자력 관련 경험이 없는 국가의 안전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 전문 규제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안전성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 원전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제도·조직·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원자력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돕기 위한 '종합규제지원패키지(IRISS)'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 "원전 수출 기반 확대에 시너지 효과 만들어낼 것"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전 도입 열기가 확산되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규제 인프라 확보가 원전 수출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강국들은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안전규제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IAEA의 안전기준에 근거, 원전 도입국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IRISS는 이들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신무기'이기도 하다.

윤 원장은 "원자력 안전규제 인프라는 원전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며 "원전 신규 도입국의 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인 IRISS와 실질적 교육·훈련기관인 국제원자력안전학교는 국제사회의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 수준을 높이고 한국의 원전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박경아 기자



한준호 기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습니다.” 인천혜광학교 시각장애 학생들이 오는 9월 28일 창단연주회를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 보이시죠? 장애의 벽을 넘은 하모니가…

## 인천혜광학교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9월 28일 창단공연 앞두고 구슬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엔 어떤 편견도 떠오르지 않는다.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9월 28일 창단 첫 연주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인천혜광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봤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8월 29일 오후. 50여 년 전통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에 학생들이 악기 종류에 따라 교실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선생님의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학생들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악기를 다루는 손길이 약간은 어설프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연신 깔깔대며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에서 그 또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랄함이 묻어 난다.

“2년 전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중학생 송지후 양은 악기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친구, 동생, 언니들과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줍게 웃는다.

“흔히 ‘시각장애인은 현악기를 다룰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조차 이 말이 통용됩니다. 그래서 이제껏 어느 누구도 시각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 그 벽을 넘고 싶었습니다.”

### “현악기는 불가능” 통념을 깬 세계 첫 도전

음악대학 출신인 혜광학교 명선목(65) 교장에게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자 목표였다. 가장 먼저 재정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악기 구입에서 강사료까지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다. 여기저기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악기를 지원받았지만 그 악기란 것이 연습용 악기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도 오케스트라를 꾸려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올 들어 학생들은 인천시립교향악단의 도움을 받아 악기연습을

시작했다. 약간의 강사료를 받긴 했지만 단원들은 거의 봉사활동 수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명선목 교장의 '도전'에 뜻을 함께한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역사회와 기업의 후원도 조금씩 받을 수 있었다.

혜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앞이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매우 약해 악기를 처음 접할 때 어려움이 무척 많았다. 오케스트라를 처음 만들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친 황수진(29) 교사는 그야말로 "무작정 몸으로 부딪쳤다"는 말로 그때의 어려움을 전한다.

"가장 힘든 점은 악기 다루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악기의 생김새를 손으로 만지고 머릿속에 그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일이 연주 자세를 잡아 주죠. 관악은 그런대로 배울 수 있지만 바이올린 같은 현악은 너무 힘들죠."

그도 그럴 것이 현악이라는 것은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다른 음을 만지게 돼 아이들은 연주를 하면서 극도로 예민해진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귀로 소리를 들으며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세는 흐트러지고, 음이 틀리게 되고…. 그야말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세를 교정해 주고 요령을 익히니 연주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뛰어난 청력과 촉각 덕분이었다.

**몸으로 부딪쳐 시행착오의 연속을 극복하다**

황 교사는 "어떤 음악을 한두 번만 들려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연주를 해요. 음악을 통째로 외워서 연주하는 거죠. '절대음감'을 가진 친구들이라 가능한 것이죠. 저희 교사나 강사들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아이들의 성격이 밝아진 것은 물론이다. 언제나 웃고 다니고 모든 일에 주눅 들지도 않게 되었다. 음악이 아이들의 일상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이다.

명선목 교장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도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를 꾸려 가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회의 편견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악기는 물론, 현악기도 능숙하게 다루는 걸 보면 외국의 연주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현악기를 다루지 못한다는 편견을 먼저 우리가 깬 것이죠."

명선목 교장에겐 이루고 싶은 소망이 많다. 가장 중요한 소망은 시각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거리를 가진 시각장애인의 수는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다.

인천혜광학교




혜광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9년 창단 후 크고 작은 무대에 올라 실력을 갈고 닦았다. 지난 7월 여름방학 음악향상캠프에서 발표회를 여는 모습.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청각과 촉각이 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침술이나 안마를 배웁니다. 이런 기술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좀 더 많은 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해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나 주말엔 음악을 연주하며 일반인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다면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을 비롯해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이번 창단연주회는 더욱 의미가 있다. 솔직담백하게 그들의 무대를 만들어 내면 깊은 감동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자연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시각장애와 편견이라는 현실의 벽을 '음악'이라는 가장 감동스런 도구로 허물려는 첫 발걸음을 떼고 있다. G

글·손수원 기자

**초대합니다**

## 인천혜광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이자 KBS 열린음악회 클래식 지휘자인 이경구씨가 지휘를 맡아 혜광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친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D장조를 비롯해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베토벤의 교향곡 등을 연주하고 광명원 아이드림 중창단, 인천시 해밀합창단, 혜광초등학교 씨엘 중창단 등이 특별 출연할 예정이다.

**일시** 2011년 9월 28일(수) 오후 3시30분

**장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인 도쿄 스페셜 에디션〉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선보인 소녀시대. 그들의 인기는 북한까지 파들어가고 있다.

# 검증된 'K팝 요정'… 일본 넘어 세계로

## "내년엔 북미서 영어로 노래… 월드와이드 기록 세우겠다"

소녀시대는 '신한류'의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일본 영어교재에 등장하는가 하면 북한 부유층 젊은이들 사이에선 소녀시대 DVD를 구하기 위해 '은밀한 거래'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도쿄돔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인 도쿄 스페셜 에디션〉(이하 SM 콘서트)은 소녀시대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웅장한 반주 소리를 뚫고 나온 외침에 객석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축을 울리는듯한 거대한 함성으로 화답했다. 공연장 내부는 온통 분홍빛 형광봉으로 넘실거렸고 천장을 감싼 대형 막이 찢어질 듯 환호는 그칠 줄 몰랐다. 소녀시대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도쿄의 심장'으로 불리는 도쿄돔에서 열린 〈SM 콘서트〉에서 객석의 호응을 독려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날 공연은 소녀시대를 비롯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f(x), 보아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여는 합동 콘서트였다. 3일간 5만명씩 총 15만명을 동원한 매머드급 콘서트로 일본 내 아시아 출신 가수의 단일 공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공연의 '꽃'은 단연 소녀시대였다. 멤버 가운데 첫선을 보인 것은 제시카. 여동생이자 f(x)의 멤버 크리스탈과 함께 '틱 톡(TikTok)'을 부르며 공연 초반 흥을 돋웠다.

### 작년 8월 일본 첫 진출 후 신기록 행진

공연이 중반으로 향하자 소녀시대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블랙톤의 의상과 함께 카리스마 넘치는 콘셉트로 등장한 '런 데빌 런(Run devil run)'이 시작되자 객석은 들끓기 시작했다.

소녀시대는 이날 공연에서 부른 7곡 가운데 5곡을 일본어 버전으로 소화했다. '배드 걸(Bad Girl)' '미스터 택시(Mr. Taxi)' 등은 일본어로 발표한 곡이고 '런 데빌 런' '소원을 말해봐' '지(Gee)' 등은 번역한 노래다. '소원을 말해봐' '지' 등을 부를 때는 주요 후렴구를 팬들이 따라 부르는 우렁찬 '떼창'이 터져 나왔다.

다른 팀에 비해 일본어 곡 비중이 높다 보니 객석의 호응도 뜨거웠다. 멤버들은 무대 중간 객석을 향해 유창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소녀시대가 일본에 정식으로 데뷔한 것은 지난해 8월 25일이다. 일본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2만여 명 팬들 앞에 쇼케이스를 열고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각선미가 예쁜 '미각' 그룹이라는 애칭으로 주목받으며 단박에 일본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SM엔터테인먼트

도쿄돔 'SM 콘서트'는 소녀시대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일본 고교 영어 부교재에 한류스타로 등장

지난 1년여 소녀시대가 보여 준 기록 행진은 실로 눈부시다. 일본 진출 기념 DVD '뉴 비기닝 오브 걸스 제너레이션(New Beginning of Girl's Generation)'은 8월 11일 발매와 함께 오리콘 DVD 일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데뷔 싱글 '지니(Genie)'를 시작으로 '지' '미스터 택시' 등 발매한 모든 싱글은 1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해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골드' 인증을 받았다.

6월 1일 발매된 일본 첫 정규 앨범 '걸스 제너레이션(Girl's Generation)'은 발매일 7만3천5백83장이 팔려 앨범 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결국 50만 장을 넘게 팔아 국내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5월 31일 일본 오사카에서 시작된 소녀시대의 첫 일본 전국투어는 6개 도시에서 14회 공연을 통해 약 14만명을 동원했다.

일본 전역을 강타한 소녀시대는 문화 현상으로 불릴 만큼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일례로 고교 영어 부교재에 소녀시대가 등장했다. 출판사 피어슨 키리하라가 만든 이 교재는 2쪽에 걸쳐 소녀시대를 비롯한 한류 스타를 소개했다.

신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른 소녀시대의 활약이 일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소녀시대의 또 다른 의미의 주무대가 된 지 오래다. 아시아를 넘어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K팝 붐을 실감하게 한다. 이들의 히트곡 '지'의 뮤직비디오는 5천만 조회수를 넘었다. '오!(Oh!)'는 4천1백만, '런 데빌 런'은 2천8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소녀시대에 대한 관심은 인터넷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도 바이러스에 전염되듯 널리 퍼지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RFA) 라디오 방송은 8월 15일 북한 젊은이들이 소녀시대 열풍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RFA는 요즘 평양 젊은이들에게 소녀시대의 춤을 배우기 위한 댄스 교습이 유행하고 중국을 왕래하는 무역상을 통해 이들의 CD를 구해달라는 청탁이 쏟아진다고 전했다.

소녀시대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팬들과 호흡할 마음을 다지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다부진 각오를 숨기지 않는다.

도쿄돔 공연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집중을 받고 있다. 많은 분이 집중해 주시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밝힌 서현의 말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 북한 젊은이들도 춤 따라하기 · CD구입 붐

8월 14일 미국 뉴스사이트 CNN과 가진 영어 인터뷰에서 소녀시대의 다짐은 좀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인터뷰는 일본의 유명 록 페스티벌 '서머소닉'에서 진행됐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에디터 로버트 마이크 풀은 '서머소닉'에 제이 지, 비욘세, 콜드 플레이 등 세계적인 톱스타들이 참가했던 것을 언급하며 소녀시대를 '한류를 이끄는 리더'라 소개했다. 풀은 "소녀시대의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며 "어린 나이부터 준비해 온 소녀시대 멤버들의 준비된 자세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를 높이 평가했다.

제시카는 "내년엔 영어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북미 진출이 성공해서) 월드와이드 기록도 세우고 싶다"고 더 큰 꿈을 드러냈다. 세계 무대를 향한 소녀시대의 당찬 도전이 세계 음악 시장에 어떤 족적을 남길지 업계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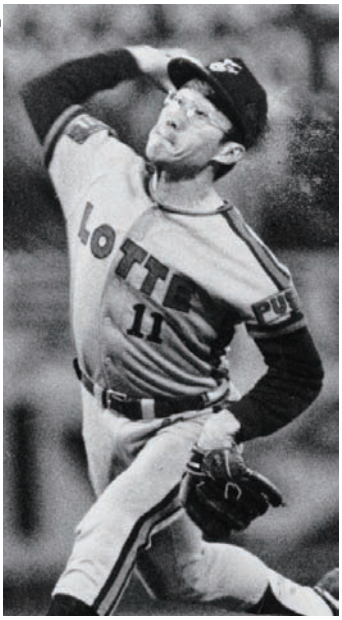
글 · 김성한 (스포츠한국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 떠나간 ‘야구 전설’ 들을 위해 할 일은?

추석연휴가 끝난 지난 9월 14일 출근 준비를 하다가 최동원 전 한화 2군감독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접했다. 지난 7월 22일 프로야구 올스타 레전드 매치 때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일을 예감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감하고 준비했더라도 ‘전설’을 떠나보내는 일은 힘들다. 장효조라는 또 다른 전설을 떠나보낸 지 겨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경남고 시절 별로 크지도 않은 체구에 금테 안경을 쓰고 나타난 그의 첫인상은 ‘공포의 외인구단’의 마동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존심 강하고 오만한 천재였다. 게다가 ‘어깨 보험’이라니. 그저 ‘번데기 스포츠 팬’에 불과했던 내가 처음부터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였다. 그러나 그는 호쾌한 투구폼으로 대담한 정면승부를 펼치며 나를 정복해 나갔다.

최동원은 1백50킬로미터를 넘나드는 강속구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커브로 한 시대를 완벽하게 지배한 위대한 투수였다. 특히 한국 야구 사상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는 선동열과의 세 차례 맞대결(1승1무1패)은 앞으로도 길이 빛날 한국 야구 역사의 보물이다. 그러나 ‘투수 최동원’을 이야기하며 1984년 한국 시리즈를 빼놓을 순 없다.





혼자서 1984년 한국시리즈 4승 신화를 쌓은 ‘무쇠팔’ 투수 최동원(왼쪽)과 ‘영원한 3할 타자’ 장효조(오른쪽). 오래도록 기억할 스포츠 영웅들이다.

### “영웅들이 선사하는 감동을 후대에 전해야”

1·3·5·6·7차전에 등판, 네 번을 완투하고 총 40이닝을 던지며 4승 1패를 기록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 가을의 전설을 통해 ‘투수 최동원’은 신화가 되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화려한 불꽃으로 타오른 뒤 하얗게 재가 되어 버린 ‘도전자 허리케인’처럼.

나는 지난 14일 강의하는 도중 그만 참지 못하고 심중의 한마디를 토하고 말았다. “최동원이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저녁에도 프로야구는 계속되겠구나.” 그런데 학생들은 ‘최동원이 누구야?’ 하는 표정이었다. 뭔가 위화감을 느낀 나는 내가 지도하는 축구 동아리 학생들에게 여론조사성 문자를 보냈다. “너희들 최동원 아냐?” 대부분 “잘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아아,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건 축구의 차범근, 농구의 허재를 모른다는 얘기랑 같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1990년대에 태어난 대학생들이 그를 알 리가 없다. 우선 우리가 그들에게 ‘전설’을 제대로 ‘전해준’ 적이 없지 않은가?

우리 세대가 김영조·김응용·김호중·남우식·윤몽룡 등 한 세대 전의 스타들에 대해 무지하듯이, 미래 세대 또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김동주·류현진·이대호·이승엽에 대해 무지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럴 것이다.

우리가 ‘명예의 전당 건립’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럴 것이다. 선동열 전 감독은 최동원 전 감독을 떠나보내며 이런 얘기를 했다. “최동원 선배는 나의 우상이었다. 연투 능력, 대담성 등 모든 면에서 나보다 한 수 위였다.” 우리는 이렇게 그릇이 큰 또 하나의 위대한 전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우리의 영웅들이 선사하는 감동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후대에게 전하는 일이다. G

글·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

# "내 음악 들어주는 사람 있어 오늘도 뜯는다"

2004년 서울 홍대 인디음악계에 한 여자가 가야금을 들고 나타났다. 가야금 싱어송라이터인 '모던 가야그머(가야금 연주자의 영어식 표현)' 정민아(32)다. 다른 인디 밴드들이 기타나 드럼을 칠 때 그는 가야금으로 '노란샤쓰의 사나이'와 자신이 작곡한 보사노바·포크 등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2007년 발매한 1집 앨범 〈상사몽〉은 1만 장 넘게 팔았고, 수록곡 '무엇이 되어'는 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렸다. 2008년과 2011년 국악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한국대중음악상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

정민아는 2009년 그의 밴드 일원인 양현모(퍼커션), 곽재훈(베이스)과 함께 '버스킹(거리공연) 투어'를 떠났다. 이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판타스틱 모던 가야그머〉(감독 최승호)가 지난 8월 18일 개봉했다. 보름 동안 전국을 돌면서 펼친 23회의 공연 여정 등을 담았다. 이 영화는 지난 8월 16일 폐막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았다.


조선DB

정민아씨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며 인디 가야금 공연에 애착을 갖고 있다.

그는 "버스킹을 하면서 CD 2천 장을 팔았다는 한 인디밴드의 경험담에 솔깃해 버스킹을 시작했는데 (나는) 1백3장밖에 못 팔았다"고 했다. "한 명이라도 와서 서 있으면 신나서 연주했어요. 충북대학교 앞에서 늦은 시간에 연주를 하는데 한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러 나왔어요. 알고 보니 우리 밴드 팬이더라고요. 당연히 '민원 제기'는 없었고 과자와 책까지 선물로 주셨죠."

정민아는 초등학교 때 한국 무용을 배우면서 가야금을 처음 접했다.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가야금 교습소에서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해 국립국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궁중음악인 '수연장지곡'을 합주했는데 너무 웅장하고 멋져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며 "'이렇게 멋진 음악을 하고 있다'는 벅찬 감동마저 느꼈다"고 했다. 한양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숙명여대 대학원 휴학 중인 그는 홍대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의 가야금 연주를 들은 클럽 사장의 권유로 무대에 서게 됐다.

정민아는 대학 때 4년 동안 주말마다 경마장 매표소에서 일했다고 한다. 대학원 휴학 이후에는 전화상담원으로 취직했다. "음악으로 돈 버는 게 힘들어요. 할 줄 아는 게 가야금 연주밖에 없으니 취업도 힘들고, 레슨을 하려고 해도 교수님의 연줄이 필요하죠. 나 말고도 졸업 후 전화상담원이 된 같은 과 친구들이 몇 있어요."

### 보름간 23회 거리공연한 여정 다큐영화로

2007년 전화상담원을 그만두고 1집 앨범을 냈지만 2009년에 '보릿고개'가 찾아왔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팔았지만, 요령이 부족한 탓에 열흘 만에 장사를 접어야 했다.

영화에도 삽입된 '주먹밥'은 당시의 실패를 노래한 것이다. 그는 "이런 경험을 안 했다면 국악밖에 모르는 내가 뭘로 노래를 만들었을까. 아마 어떤 얘기로 노래를 만들었어도 겉돌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낙천적이다. 요즘은 홍대 갤러리 카페에서 공연과 공연기획을 하면서 한 달 평균 80만~1백만원 정도를 번다.

정민아는 "국악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는 음악은 가야금을 사용한 인디 포크"라며 "본질을 해치지 않는 음악, 자연스러운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 "가야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본능 같은 거죠. 앞으로 보릿고개가 또 찾아올 수 있지만 뭐 어때요? 닥치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테니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죠." G

글·변희원 (조선일보 대중문화부 기자)

##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한 〈미인도〉

# 도회적인 화풍… 그에게선 '기인의 향기'가

조선후기 풍속화가 혜원(蕙園) 신윤복은 과연 여자였을까? 김홍도와는 사제간 또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을까? 그러나 신윤복이 여자였을 것이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 영화 〈미인도〉는 신윤복이 남장을 한 여성이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일러스트 · 신용호

조선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이 여성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영화 〈미인도〉(2008년 작·감독 전윤수)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남장을 한 채 여성성을 감추어야 했던 신윤복(김규리 분)이 강무(김남일 분)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본성과 예술적 개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거기에 18세기 말 정조 초년의 사회상과 '문체반정'이라는 다소 경직된 문화정책 속에서 예술가들이 느끼는 고뇌 등을 적절히 잘 섞어 넣어 스토리를 전개하였다.

신윤복이 여성이었을 것이라는 설은 그의 그림이 다른 남성화가(특히 김홍도)와 비교하여 선이 가늘고 섬세하며 그림의 소재가 주로 남녀의 사랑이야기이고 그의 호 혜원(蕙園)의 혜(蕙·풀이름 혜, 난초 혜)자가 남성에게는 잘 붙이지 않는 글자여서 혹시 그가 여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후대의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신윤복이 여자였을 것이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

### 조선후기 유명한 화가가문 출신

실제 역사에 남아 있는 신윤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안타깝게도 그의 그림이 가진 명성에 비해 화가 신윤복 개인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는 김홍도(金弘道)·김득신(金得臣)과 더불어 조선 3대 풍속화가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풍속화뿐 아니라 중국 남종화풍의 산수화나 새와 짐승을 그리는 데도 뛰어난 직업적인 화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윤복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의 집안은 조선후기 화가 가문으로 꽤 유명했다.

그의 아버지는 영화에 나오는 대로 신한평이다. 영화에서는 신한평이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딸아이를 사내아이로 만들어 도화서에 들어가게 한다. 하지만 역사상 신한평은 한 차례 귀양살이를 했으나 굳이 딸아이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자신이 상당히 잘나가던 화가였다.


조선DB

신윤복의 그림은 당시 다른 남성 화가에 비해 선이 가늘고 섬세하다. 그림의 소재도 주로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많이 다뤘다.

도화서 화원이었던 신한평은 〈연려실기술〉에도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는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 있고 젊었을 때는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를 그린 의궤작업과 영조와 정조의 어진을 그리는 작업에도 참여했으며 77세 나이로 순조의 혼례의궤 작업에도 참여하는 등 말년까지 궁중의 공식 기록화가로서 그 화필을 날렸다. 신윤복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부도 화원(畵員)이었고 작은할아버지도 당대 유명한 화원이었던 신일흥이었다.

조선시대 화원은 중인계급으로 도화서에 들어가 주로 국가 행사를 기록하고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기록화가로서 활동하였다. 그 외 개인적인 취미와 의뢰 등으로 산수나 화조, 풍속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도화서는 그림 그리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한성부 중부 견평방(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 단원과 다른 화풍…후대의 상상력 자극

화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은 종 6품 '별제'까지였다. 〈경국대전〉에 보면 도화서에는 그림을 배우는 생도 15명을 배치하여 화원을 양성하고 국가의 각종 의식이나 행사 및 초상화 등을 그리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1746년(영조 22)에는 화원의 임무가 증대되면서 생도가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었다.

영화에서처럼 신윤복이 도화서에서 화원으로 활동하였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의 가문이 대대로 화원집안이었고 그가 그린 그림의 성취도로 보아 화원으로 도화서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인간의 감정을 그린 그의 그림이 당시 유교이념을 중심으로 문화를 이끌어 가고자 하였던 정조의 문화정책과 맞지 않아 도화서에서 쫓겨났을 것이라는 속설이 있다. 영화에서도 이 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주요한 갈등의 축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처럼 신윤복과 김홍도(김영호 분)는 사제관계였을까? 이 또한 분명한 것은 없지만 김홍도가 신윤복보다 10여 살 많은 동시대 인물이고 신윤복이 그린 산수화 곳곳에서 김홍도의 영향으로 짐작되는 부분이 종종 발견되는 것, 신윤복의 호가 김홍도의 호인 단원에서 원자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이 남성적이고 토속적인 데 비해 신윤복의 그림은 섬세하고 세련된 필치에 다루는 소재도 도회적이어서 김홍도와는 분명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익의 손자인 이구환은 신윤복에 대해 '마치 방외인(속세를 떠난 사람) 같고 여항인(저잣거리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동가식 서가숙하는 화가'라고 평하였다. 이 글을 볼 때 신윤복은 어느 순간 유명한 화원가문의 장남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한양거리를 떠돌며 자신만의 그림세계를 추구하던 예술가이자 기인이었던 듯하다.

### '미인도'의 여인은 사랑했던 기생일 가능성

아마도 그가 머문 곳이 대부분 주막이나 유곽 같은 곳이라 남아 있는 그림 또한 남녀의 내밀한 정을 나타낸 그림이 많으리라 짐작된다. 실제 신윤복이 그린 풍속화들은 그가 중년이 넘어서 그린 것들이 많다. 영화에서는 신윤복이 젊은 나이에 풍속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그가 남긴 그림의 연대로 보았을 때 차이가 있다.

신윤복의 대표작이며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미인도〉는 영화에서는 신윤복 본인의 자화상으로 나온다. 실제 미인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여염집 여인이 아무리 화가 앞이라고 하여도 얼굴을 내비칠 수는 없었을 테니 아마도 그림의 주인공은 신윤복이 드나들던 유곽의 기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인도의 좌상단에 쓰여진 제시에서도 '마음에 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신윤복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G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수암골의 옛 골목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벽화.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는 아이의 뒷모습도 재미있다.

### 충북 청주 수동 '수암골'

# 서민의 달동네가 그림을 만나 추억의 골목여행 성지가 되다

청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수암골은 한국전쟁 때 내려온 피란민들이 만든 마을이다.
2007년 벽화가 그려지면서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하더니 드라마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의 촬영지로 소문나면서 디카족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충북 청주시 수동 수암골목 1번지. 일명 '수암골'로 불린다. 우암산 서쪽 자락에 자리잡은 달동네다. 드라마 〈카인과 아벨〉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극중 초인(소지섭)과 영지(한지민)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터전으로, 애틋한 사랑이 싹튼 곳으로 소개됐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팔봉빵집으로 한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드라마가 유명세를 타면서 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부쩍 늘었다.

수암골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마을이 가까워지면서 '카인과 아벨 촬영지 가는 길'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마을 앞에는 차 5~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돼 있다. 입구에 '삼충상회'가 있다. 수암골에서 유일한 가게다.

담배와 음료수, 과자 등을 판다. 짙은 푸른색 페인트칠을 한 간판이 예쁘다. 빗물받이에도 꽃그림을 그려놓았다. 삼충상회 앞은 공터. 마을 사랑방 겸 회관 구실을 한다.

###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 촬영지로 유명세

골목입구에 마을 지도가 그려져 있다. 지도를 보니 골목의 모양이 대충 상상이 간다. 골목은 밤톨처럼 생겼다. 찐빵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다. 마을을 둘러싼 큰길이 있고 큰길 아랫부분에서 네 개의 골목이 갈래를 친다. 네 개의 골목은 마을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밭전자(田) 모양으로 나뉜다.

수암골은 원래 광복 후 일본과 중국에서 들어온 동포들이 터를 잡은 곳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울산 23육군병원 앞에 천막을 치고 살던 피란민들이 청주로 이주하면서 마을이 커졌다. 수동이라는 지명은 옛날 수용소터를 가리키던 명칭이다.

"여기 흙으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찍어 집을 지었지. 방 2개, 부엌 하나를 들였어. 그때 집을 튼튼하게 지었지. 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집과는 달랐어."

삼충상회 주인 박만영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집의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다. 전쟁이 끝나자 수암골에 자리 잡았던 피란민들 대부분은 수암골을 떠났다. 당시부터 살고 있는 가구는 몇 집 되지 않는다.

"다들 아들네, 딸네 집으로 갔어. 시내로 새집 사서 나간 집도 여럿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한 1백50여 세대나 될까? 빈집도 여럿 있구먼."

물도 물지게로 져다 날라야 했고 연탄도 마을 아래에서부터 지게에 실어왔다고 한다. 몇 년 전까지도 공동변소를 사용했다.

"화장실 없는 집이 부지기수였지. 아홉 집, 열 집이 변소 하나를






수암골은 인기드라마의 촬영지로 소개되면서 떠들썩해졌다(위 사진). 골목마다 슬레이트 지붕을 인 집들. 벽화와 어우러져 여행 명소가 됐다(아래 사진).

나눠 썼는데 비가 오면 똥물이 또랑을 만들었지."

6년 전 주택공사에서 번듯한 시멘트 공동화장실을 세워줬지만 화장실 문은 닫혀 있다. 전기세,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탓이다.

### 길 잃을 염려 없이 20~30분이면 '동네 한바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쓸쓸한 달동네였던 수암골. 잿빛 시멘트 담을 두르고 슬레이트 지붕을 인 집들이 좁은 골목을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던 마을은 2007년 이후 달라졌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이홍원 화백을 비롯한 충북민족미술인협회 회원, 충북 민예총 전통미술 위원회 회원 작가, 청주대, 서원대 학생들이 '추억의 골목 여행'이라는 주제로 서민들의 생활을 담은 벽화를 그렸다.

무채색의 스산한 골목은 각종 그림으로 꾸며진 산뜻한 골목으








**1** 아직도 남아 있는 옛골목의 흔적들. **2** 수암골에 그려진 다양한 벽화들. **3** 수암골 좁은 골목에는 느리게 걸으며 '아날로그 여행'을 즐기는 연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로 재탄생했고 벽화골목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카메라를 든 네티즌들이 하나둘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라마 〈카인과 아벨〉과 〈제빵왕 김탁구〉 촬영 이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평일이건 주말이건 사진동호인들이 몰려든다. 요즘에는 일본인 관광객도 알음알음 찾아온다고 한다.

수암골은 작다. 느긋하게 돌아보아도 20~30분이면 충분하다. 지도가 그려진 길을 지나 골목길을 올라가면 벽화를 하나둘 만날 수 있다. 연꽃이 그려진 벽, 익살스러운 호랑이가 그려진 벽,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는 그림이 그려진 담장도 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고, 시원한 바다가 그려진 담장, 발레리나가 그려진 벽도 있다.

꽃잎이 새겨진 계단은 통째로 들어내 가고 싶을 만큼 예쁘다. 녹슨 철대문과 쓰러질 듯 서로 기대 선 담벽들, '근면·자조·협동' 표어 따위들이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길은 어떻게든 서로 만난다.

굳이 벽화가 아니더라도 수암골 골목길 풍경은 놀랍다. 전깃줄 수백 가닥이 얽히고설킨 전봇대가 서 있고 사람 한명이 지나기에도 힘겹게 보이는 좁은 길도 있다. 집 앞에는 파와 상추를 심어놓은 화분이 놓여 있다. 화분도 알록달록하게 색칠했다.

대문 너머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골목 담벼락에는 양철 보일러 환기구가 버젓이 드러나 있다. 아이스크림을 입에 문 아이가 골목길을 뛰어간다.

### 저녁이면 골목 평상에 앉아 한가로이 TV 시청

전망도 참 좋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청주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공터가 자리하고 있다. 공터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오면 예쁜 골목과 만난다. 계단에 빨간 꽃그림이 앙증맞게 그려져 있고 벽에







발레리나가 그려진 낡은 벽(위 사진). 골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주민들(아래 사진).

는 발레리나가 그려져 있다. 발레리나의 표정이 평화롭고 다정하다. 금방이라도 춤을 추며 골목으로 내려올 것만 같다.

저녁이 되면 수암골은 부산해진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나온다. 줄넘기를 하고 배드민턴을 친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퍼진다. 주민들은 골목에 내놓은 평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그 옛날 흑백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당시의 풍경을 보는 것 같다.

"여기가 수암골 극장이오. 상영시간은 해질 때부터 밤 10시까지. 저기 시내에 보이는 '대한생명' 간판이 딱 10시에 꺼지거든. 그때면 텔레비전 끄고 자러 들어가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삶은 고구마를 나눠 먹는 모습이 마냥 정겹다. 하지만 수암골 주민은 밤 9시 이후 골목 투어를 정중히 사양하니 참고하자.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중부고속도로 서청주나들목이나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을 이용한다. 북청주행 버스를 타면 북청주정류장에 내린다. 수암골은 북청주정류장(청주대학교)에서 10분 거리. 우암초등학교를 찾아가면 된다. 초등학교 주변에 '수암골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가 있다. 마을 한켠에 빈집을 사진전시관으로 꾸민 '수암골 사진관'이 있다. 수암골의 옛 모습을 전시해 놓았다.

**잠잘 곳** 청주 시내에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043-290-1000), **명암파크관광호텔**(043-257-7451), **오디세이모텔**(043-254-6969), **잉카의 작은 마을**(043-287-9971) 등이 있다.

**먹을 곳** 공원에서 조금 내려오면 오른쪽에 2층짜리 조각전시장 겸 카페 **브룩스**가 있다. 2층 옥상에서 차를 마시며 시내를 둘러볼 만하다. 수암골을 돌아본 후 우동 한 그릇으로 속을 채우는 것도 좋다. **서문우동**(043-256-3334)은 3대째 빵과 우동을 팔고 있다. 커다란 '고로케'도 먹음직스럽다. **공원당**(043-255-3894)은 돈까스와 우동을 함께 판다. 쫄깃한 면발이 일품이다.

# 하늘을 밀고 땅을 눌러 자연의 힘과 하나 된다

100세 장수의 시대다. 모두들 현대의학의 개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빠져있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첨단기기들에 매달려 일상을 보내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길들어가는 현대인들이 또 첨단과학에 힘입어 생명을 연장한다면, 국민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태극권이야말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가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뜨려 많은 사람들이 수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사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주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태극권의 보급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부드럽고 여성적인 움직임을 통해 몸의 외형뿐 아니라 몸속 내장까지를 고루 운동시키는 태극권은 그 어떤 운동보다 여성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제 태극권 중 하늘과 땅을 밀며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동작을 통해 온몸의 기를 다듬고 활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두 동작을 따라해 보자. G

## 양손으로 하늘을 밀어, 몸을 개운하게 수분배출을 원활하게

**몸의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천천히 수련하면 온몸이 개운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동작이 '양손으로 하늘 밀기'이다. 건신12단금 중 첫번째 동작으로 다른 운동이나 생활 도중 찌뿌둥할 때 몇 차례 행하면 상쾌한 몸상태를 얻을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일단 하면 반드시 시원해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수분의 배설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다.**



1 두 발을 모으고 똑바로 서서 앞을 본다. 양손을 깍지 끼워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한 상태로 단전 앞에 두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2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양손을 위로 들어올리다 얼굴 앞에서 손바닥을 밖으로 돌리며 머리 위로 쭉 밀어올리다. 이때 숨을 내쉬고, 하늘을 떠받치는 느낌을 갖는다. 발꿈치는 든다.

3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양손을 내려 사진1과 같은 상태로 돌아온다. 이 동작을 6회 반복한다.

## 하늘을 밀고 땅을 누른다

**건신12단금의 두번째 동작인 '하늘 밀고 땅 누르기' 동작은 자연의 거대한 힘과 하나가 되면서 온몸을 가다듬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히 하는 움직임이다. 팔과 손에 힘을 빼고 온몸의 기로 운신하다보면 쩌릿쩌릿 기의 움직임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동작이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1 숨을 들이쉬며 오른손은 손바닥이 위로 오게하여 귀 옆으로 붙이고, 왼손은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채 허리 옆에 붙인다.



2 숨을 내쉬며 오른손은 하늘을 떠받치듯 밀어올리고, 왼손은 땅을 누르듯 밀어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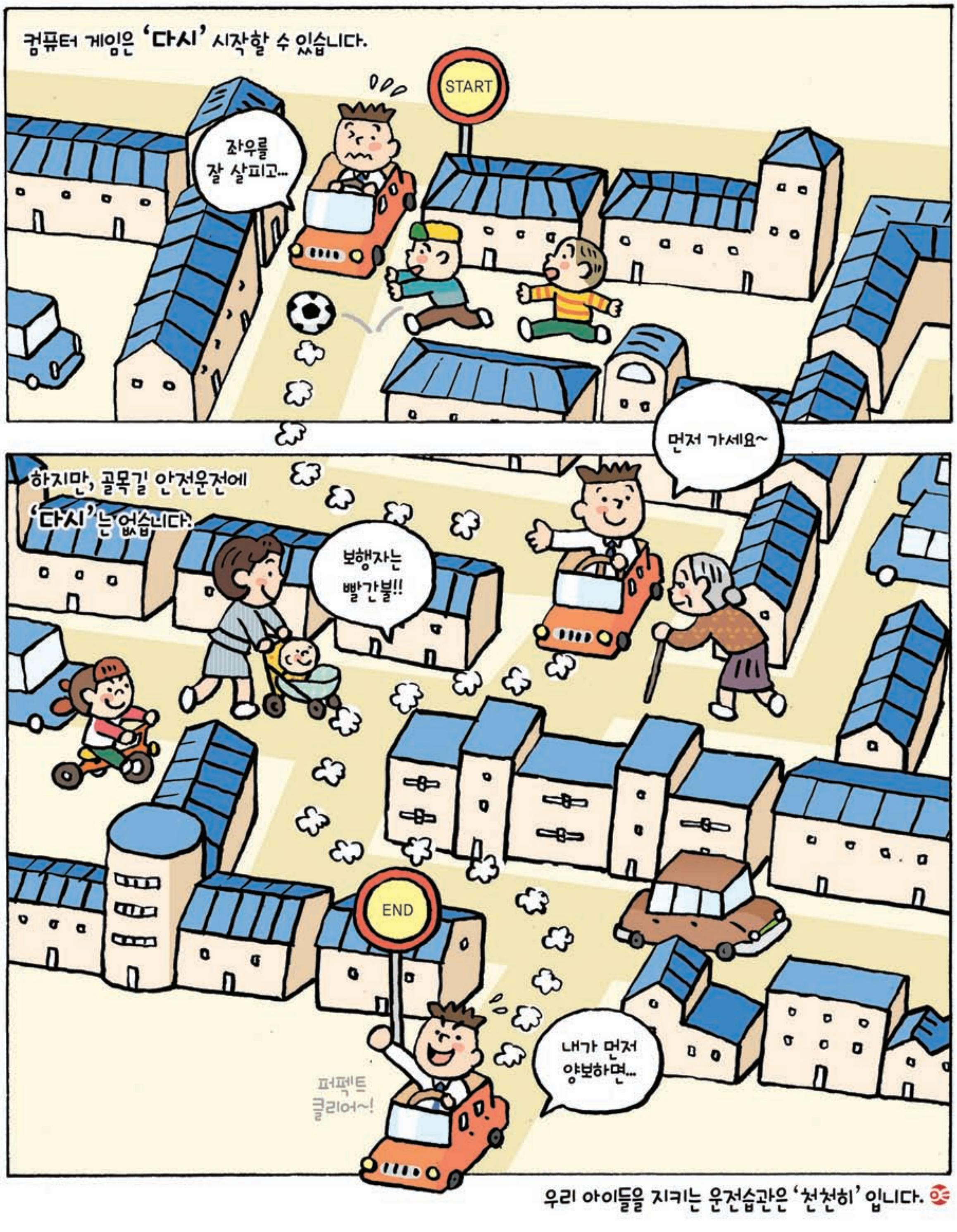
3 숨을 들이쉬면서 왼손을 들어올려 사진1의 반대방향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고, 위의 동작을 되풀이한다. 12회 되풀이 한다.




대한태극권협회 명예회장인 이찬 선생이 누구나 쉽게 태극권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CD가 함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 동아E&D 펴냄 · 1만4천5백원

# 달인의 운전 습관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 〈두근두근 내 인생〉

# 평범하되 황홀한 ‘부모 · 자식의 인연’



김애란 지음
창비 펴냄 · 1만1천원

살면서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단상이 떠오를 터다. 당연히,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적에 가슴이 쿵쾅거린 기억이 있으리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어떤 일의 성사여부를 알기 직전에도 심장은 요동쳤을 테다. 가장 긴장하고 흥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빛나는 순간이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제목으로도 짐작할 만한 내용일 듯싶다. 그런데 이 소설은 독자의 생각에 허를 찌른다. 우리 삶이 반드시 그럴 때만 황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주인공 아름은 조로증에 걸려 곧 삶을 마감해야 한다. 일찌감치 병을 앓아 온지라 내심 준비해 왔다. 남보다 더 이르게 정신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니 이 작품에서 어른과 아이의 관계는 상식에 반하여 뒤집어진다. 어른은 아직 미숙하고 아이는 어른 같다는 말이다.

아름의 부모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열일곱 살에 아름을 낳았다. 깊은 사랑의 결과로 보기에도 어려웠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하다 눈이 맞았고 진도가 너무 빨라 아이를 가졌다. 얼마나 철없는 일인고. 그래도 이들이 대단했던 것은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 소설의 제목이 말하는 바는, 어미의 자궁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고 그 생명체가 어미의 심장소리를 듣는 장면을 상징하거니와, 거꾸로 어미가 아이의 심장소리를 기계의 힘을 빌려 듣는 장면을 뜻한다. 이른바 소통이다.

삶에서 이만큼 극적인 소통이 어디 있겠는가. 둘 다에게 벅찬 순간이며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가능케 하는 순간이다. 작가는 그때를 이렇게 그려낸다.

“듣다 보니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다. 명령어를 전달받은 세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기관들이 움트며 기지개를 편 거였다. 간이 부풀고 콩팥이 여물며 우둑우둑 뼈가 돋아났다.”

그러나 소설은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아비는 하던 일을 접어야 했고 아이는 병을 앓는다. 어미는 일상과 병시중으로 지쳐 간다. 아이는 서둘러 어른이 되어 가는데, 부모는 아직 아이이다.

아름이가 부모의 사랑이야기를 글로 적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싶다. 내 삶의 비롯됨을 곱씹어 보는 것만큼 성숙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 소설은 푸근하다. 신파조가 아니다. 밝고 훈훈하기까지 하다. 작가의 역량에 큰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조로증’ 늙은 아이와 ‘철없는’ 어린 부모의 소통과 사랑

늙으면 죽는 법이다. 열일곱. 어미와 아비가 만나 자신을 만든 나이다. 그곳에 죽음이라는 낭떠러지가 입을 쩍 벌리고 있다. 모르고 가면 두렵지만, 알고 가면 훨씬 덜 힘든 법. 여기서 두번째 두근거림을 확인한다. 죽어 가는 아이, 아니 정신은 이미 노년의 단계에 든 자식을 힘껏 껴안는 아비와 자식이 서로 심장소리를 듣는다. 이해와 사랑,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서 두근거림이다.

이 두근거림은 희망으로 확장된다. 멋모르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았던 부모가, 아름이를 키우며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어, 아름의 뒤를 이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두근거리는 것, 황홀한 것, 그지없이 기쁜 것이다.

누구의 삶이든 그것은 경이로운 것이며 찬탄받을 만한 것이다. 남이 그리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법. 김애란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두근거릴 만한지 말해 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 바인지 말이다.

인생이라는 말에 가장 빛나는 수식어를 붙여 보자. 두근두근이라는 부사를. 그러면 달라진다, 내 삶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다워지니까. 우울하고 침울하고 불안하다면 〈두근두근 내 인생〉을 읽어 볼 일이다. 삶이 갑자기 발랄해질 테니까 말이다. G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 잎이 시들면

글과 그림 · 최영순




앞날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아야 한다.
– 공자




**국악** **〈2011 MUSILYMPIC, the ONE〉**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공식 후원하는 〈2011 뮤직림픽 더 원(MUSILYMPIC, the ONE)〉은 캠페인 티셔츠 한 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무대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공연 캠페인이다. 아시아의 대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공동 참여한다. 이번 공연에는 슈퍼주니어, 비스트, FT아일랜드, 성시경, AI가 무대를 장식한다. 콘서트 수익금은 IUCN의 환경보호 자금으로 기부한다.

**일시** 9월 30일 **장소**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문의** 02-3442-6312




**오페라** **〈가면무도회〉** 국립오페라단의 2011년 마지막 시즌공연이 개막한다. 오페라 〈가면무도회〉는 격정의 시대를 살았던 엇갈린 운명 속 세 남녀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다. 국립오페라단은 그동안 축적해 온 오페라 제작 및 예술적 노하우를 이번 작품에 쏟아낼 예정이다. 웅장한 무대와 화려한 의상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그랜드 오페라가 준비돼 있다. 테너 정의근, 바리톤 고성현 등 대한민국이 낳은 정상의 성악가가 총출동한다.

**일시** 10월 13~16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2-586-5282



**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신명나는 국악과 판소리가 한데 어울리는 음악 축제가 열린다. 고즈넉한 전주한옥마을의 정취와 함께 흥겨운 장단을 즐길 수 있다. 세계의 소리와 관객들의 추임새로 만들어지는 음악축제다. 2011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이리 오너라 UP GO 놀자'라는 주제로 전통음악뿐 아니라 대중음악, 세계음악의 조화를 통해 폭넓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을 구성해 입체적인 세계음악예술제로서의 명성을 자랑한다. 이번 소리축제에는 김형석과 박칼린이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일시** 9월 30일~10월 4일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문의** 063-232-8398


국립극장

이번 2011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에서는 단군과 웅녀를 소재로 한 순헌무용단의 '물빛이 하늘빛을 담을 제'를 선보인다.

# 국내외 공연예술 걸작 서울서 환상무대 선사

##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세계 거장들의 걸작시리즈로 구성되는 〈제5회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이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KB국민은행 청소년 하늘극장 등 4개의 극장에서 펼쳐진다.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은 공연예술 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며, 관객들에게 수준 높고 개성 있는 국내외 공연예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프랑스 코메디프랑세즈의 〈상상병 환자〉, 로버트 윌슨의 최신작 체코 프라하국립극장의 〈마크로풀로스의 비밀〉,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합작 중국 국가브랜드공연 랴오닝발레단의 〈마지막 황제〉 등의 명작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인 아힘 프라이어와 함께한 판소리 오페라 〈수궁가〉로 무대를 개막한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저마다의 강한 개성을 띤 18편의 국내 우수·초청작들도 무용, 연극, 음악,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공연된다.

〈춘향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 춤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인천시립무용단의 〈풍속화첩-춘향〉을 비롯해 한국의 고조선을 개국한 단군과 웅녀를 새롭게 조명한 한국 창작무용극 순헌무용단의 〈물빛이 하늘 빛을 담을 제〉 등이 기대를 모은다. G

**일시** 10월 30일까지 **장소** 서울 중구 국립극장 **문의** 02-2280-4114

# 댄스… 댄스… 댄스… 춤의 바다에 빠져보자

## 〈서울세계무용축제〉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가 '제14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2011)'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일본, 레바논, 미국 등 17개국 52개 단체가 참가해 춤의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 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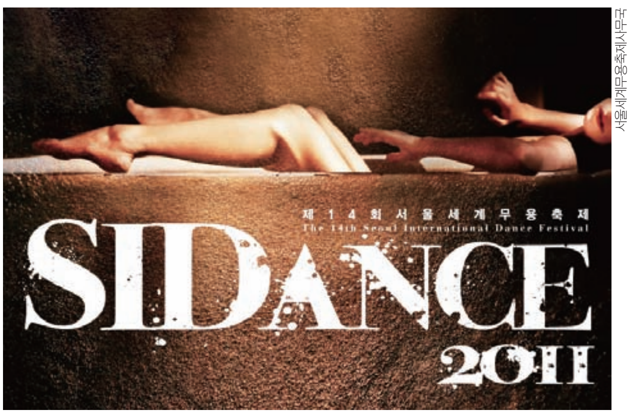
멕시코의 여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을 조명한 독일 자를란트 주립 발레단–돈론 댄스 컴퍼니의 〈프리다 칼로의 푸른 집〉을 비롯해 아일랜드 음악을 우리 춤으로 풀어낸 〈세계음악과 만나는 우리춤〉 등 51개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

축제 기간 중에는 국내외 무용비평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날의 무용문화에 대해 토론을 펼치는 공연저널리즘 서울포럼도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포럼에서는 '커뮤니티 댄스'를 주제로 춤의 사회적 공공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갖는다.

또 소극장 무대에 최적화된 7개의 공연이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 전후 극장 로비 및 광장 도시 곳곳에서 국내외 아티스트, 관객들이 모두 함께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풍성한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G

글 · 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9월 29일~10월 16일 **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호암아트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문의** 02–580–1300




서울세계무용축제사무국

제14회 서울세계무용축제는 17개국 52개 단체가 참가해 51개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 공연 | 장소 | 날짜 | 문의 |
|---|---|---|---|
| **뮤지컬** | | | |
| 렌트 | 충무아트홀 대극장 | 10월 9일까지 | 1544–1555 |
| 바람의나라 | 충무아트홀 대극장 | 10월 14~23일 | 02–3496–8841 |
| 명성황후 | 대구 계명아트센터 | 10월 22~23일 | 053–762–0000 |
| 친정엄마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대공연장 | 10월 8~9일 | 053–762–0000 |
| **연극** | | | |
| 추문패거리 |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 9월 30일 ~10월 16일 | 02–339–1135~7 |
| 늙은 자전거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 10월 6~8일 | 031–783–8000 |
| 바람곶의 음악극〈꼭두〉 | LG아트센터 | 10월 20~22일 | 1544–1555 |
| 아크로바틱〈파우스트〉 | LG아트센터 | 10월 27~30일 | 02–2005–0114 |
| **콘서트** | | | |
| 성시경 콘서트 | KBS 부산홀 | 10월 8~9일 | 1566–5490 |
| 이사오 사사키 휴 콘서트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0월 16일 | 02–2658–3546 |
| 파이널 판타지 오케스트라 콘서트 2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10월 22~23일 | 1544–1681 |
| **클래식** | | | |
| 러셀 셔먼 피아노 리사이틀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9월 27일 | 02–541–2513 |
| 러시 아워 콘서트3 | LG아트센터 | 9월 27일 | 02–2005–0114 |
| **오페라/무용** | | | |
| 아크람 칸 –버티컬 로드 | LG아트센터 | 9월 30일 ~10월 1일 | 02–2005–0114 |

### 9월 둘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8월 28일~9월 3일

| 곡명 | 가수 |
|---|---|
| 1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 다비치 |
| 2 나란 놈은 답은 너다 (Feat. 하림) | 리쌍 |
| 3 TV를 껐네… (Feat. 윤미래, 권정열) | 리쌍 |
| 4 회상 (Feat. 백지영) | 리쌍 |
| 5 Top Girl | G.NA |
| 6 So Cool (쏘쿨) | 씨스타 (Sistar) |
| 7 좋아보여 (Feat. 검정치마) | 버벌진트 |
| 8 가질 수 없는 너 (뱅크) | 장혜진 |
| 9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Feat. 정인) | 리쌍 |
| 10 그리움만 쌓이네 (여진) | 윤민수 |

## 〈통증〉〈최종병기 활〉

# 불멸의 영웅, 죽어야 사는 존재들

비장한 최후는 영웅들의 트레이드 마크다. 영웅이 방 아랫목요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자식, 손자들에 둘러싸여 유언을 남기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웅은 백성을 다 구하고 나서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장렬하게 산화해야 제격이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 한가운데서 적의 유탄을 맞고 쓰러졌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영웅들의 삶은 죽어야 하는 삶이다. 인디언의 명언,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다'는 '인간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라는 명제가 인생의 목표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자식을 기르는 일에 온통 매달려 사는 평범한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은 아니고 많은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는 영웅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수를 살린다. 그래서 영원한 삶, 불멸을 얻는다.

### 고결한 희생으로 마감하는 영웅의 최후

영화 〈최종병기 활〉에 나오는 활은 쏘는 활이지만 살 활(活)의 의미해석을 유도한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백성의 노예적 삶을 그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활을 쏴 무수한 적병을 죽이고 백성과 나라를 구원한다. 생존의 도구이자 생명의 은인인 것이다. 조선 임금도 무릎 꿇고 비는 상황에서 일개 서민이 대국 청나라에 맞선다는 것은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격이요 중과부적이다.

영웅의 면모는 그 상황에서 발휘된다. 그는 자신의 목을 내밀고 적과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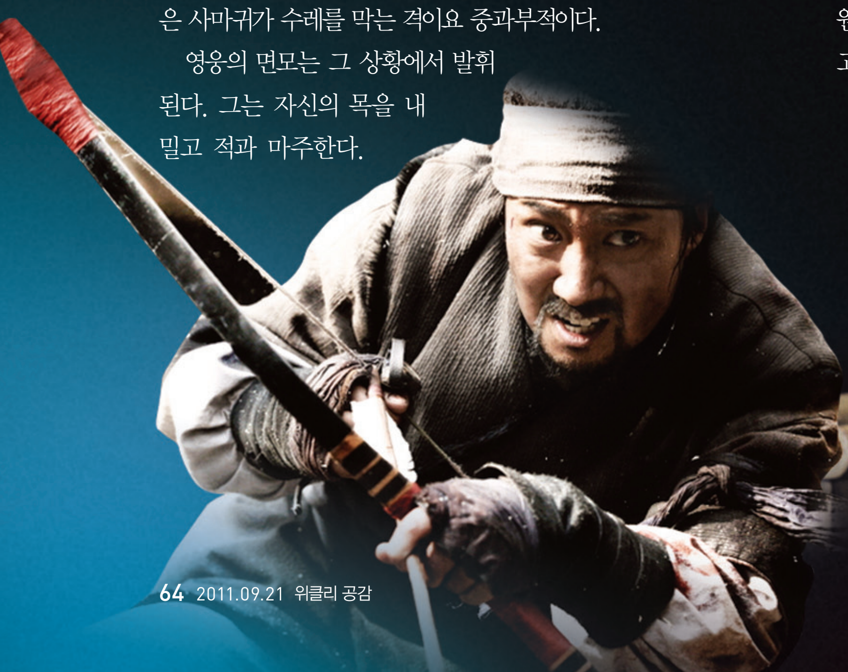
*영웅은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백성을 구하고 나서 전쟁의 한가운데서 장렬하게 산화해야 제격이다. 영웅이 방 아랫목에 누워 유언을 남기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죽어야 하는 삶이다. 그렇게 영원한 삶, 불멸을 얻는다.*

그와 활은 한 몸으로 변한다. 그의 몸이 적을 향해 돌진할 때 한갓 비루한 삶은 천상의 음악이 되고 향기가 된다. 말 그대로 만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꽃이 되어 흩어진다.

영웅의 고결한 희생은 일반인들의 마음속에도 살아있고 극한적 상황에서 인간은 가끔 그런 영웅적 행동을 모방한다. 강풀 원작만화를 영화화한 〈통증〉에는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두 커플이 등장한다. 불의의 사고지만 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삶의 의미를 잃은 남자와 선천성 불치병으로 인해 시한폭탄 같은 삶을 유지해야 하는 여자의 사랑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들을 방해하는 인간 아귀들이 도처에 존재하니까.

남자는 이 비정한 삶의 끝에 스스로를 산화시킬 방법을 궁리한다. 생명보험금으로 가족을 살리고자 교통사고사한 세일즈맨처럼 말이다. 그건 분명 평범한 서민들 삶의 방식은 아니다. 〈통증〉은 영웅의 삶을 모방하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어쩌면 영웅의 삶에 원하지 않게 내몰린 절박한 간증일수도 있다. 그는 어쩌면 평범하고 화목하며 소박한 삶을 꾸미고 싶었을지 모른다. G

글 · 정재형 (동국대교수 · 영화평론가)





# 세계7대자연경관, 대한민국의 꿈!

## 국민 여러분의 손끝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11일 **제주**를 전세계인이 가보고 싶어하는
**"제 2 의 로마"**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합시다!



"초등 3년생 8년모은 돼지저금통 기탁"




"제주시내 모 식당 투표참여자 할인이벤트"



"자비로 서울강남역 무료광고 게재"

**2002**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 세계지질공원 인증

##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 2011 세계7대자연경관




- 문자 투표 : ☎ **001-1588-7715**로 **제주** 전송 (150원)
- 전화 투표 : ☎ **001-1588-7715 → 1번 → 7715** (180원)
- 인터넷 투표 : **www.n7w.com** (투표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참조)

※ 문자 전화 투표는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 인터넷 투표는 이메일 계정수 만큼 가능.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2011 KOREAN GRAND PRIX

# 세계인의 스피드축제 F1질주!!



# FORMULA 1™

## KOREAN GRAND PRIX_YEONGAM

## 2011.10.14~16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 등급 | 좌 석 명 | 티 켓 가 격 (원, 부가세 포함) | | |
|---|---|---|---|---|
| | | 전일권(10/14~16) | 일요일(10/16) | 토요일(10/15) |
| R | 메인그랜드스탠드 | 890,000 | 720,000 | 460,000 |
| S | 그랜드스탠드 A | 690,000 | 540,000 | 370,000 |
| A | 그랜드스탠드 C / D | 510,000 | 410,000 | 260,000 |
| B | 그랜드스탠드 B / E / F / G / H / L / M | 380,000 | 280,000 | 170,000 |
| C | 그랜드스탠드 I / J | 180,000 | 145,000 | 87,000 |

※ 6월말(20%), 8월말(10%)까지 조기구매 할인율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50% 상시 현장할인

티켓구매 : www.koreangp.kr www.interpark.com 콜센터 : 1588-3448